

開明共產歌



[해제]

" <개명공산가(開明共產歌)>는 경상북도 상주군에 소재한 동학교당(東學敎堂)에서 1932년 간행한 동학가사로 『용담유사(龍潭遺辭)』 권21에 수록되어 있다. 1(冊) 21장(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 겸 발행자는 김주희(金周熙)로 되어 있다. 동학교당에서 간행한 동학가사는 원칙적으로 국한문본과 순 한글본이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명공산가> 역시 2종이 함께 전한다. 상주 동학교당은 최재우(崔濟愚) 동학사상(東學思想)의 도통(都統)을 이어 새로이 동학교(同學敎)를 창시한 김주희가 1915년 건립한 동학교의 본부인데, 여기에서는 동학의 기본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용담유사(龍潭遺辭)』 외에도 많은 동학가사를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교당 설립 초기에는 경전을 중심으로 간행하다가 1920년대 말부터는 가사가 중심이 되었는데 1910년부터 1951년까지 경전 16종, 국한문가사 36종, 순한글가사 39종 등 총 91종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동학교의 신앙대상은 ‘천(天)’, ‘천주(天主)’, ‘하늘님’이다. 이 작품에서도 하늘님은 천지만물과 인간을 제조하여 그 부모가 되는 절대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작품의 제목이 <개명공산가>이므로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개명(開明)’과 ‘공산(共產)’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개명’과 ‘공산’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명확한 개념규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경천순천(敬天順天)하여 계천립극(繼天立極)한 여러 성인(聖人)들을 본받아서, 지극한 은혜를 베푼 천지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고 우애로써 형제를 섬겨 서로 도움이 되는 것, 즉 ‘효제(孝悌)’하는 것만이 ‘개명’과 ‘공산’의 이치라고 주장한다. "

[원문]

開明共產歌

개명공산가(開明共產歌)

御化世上 사름들아 淺見薄識 台乃사름
 不然其然 그가온디 賦也興也 比히여서
 노리흔章 지엇시니 童謠갓치 알지말고
 仔細보고 料度하쇼
 無事흔 台乃사름 受命于天 밧은몸이
 運數靑林 조흔景의 無窮樂에 興을일워
 無窮无窮 닥거니여 無窮无窮 식다르니
 無窮无窮 내안인가
 無窮흔 台乃사름 無窮无窮 말을하여
 無窮无窮 닐커르니 그무어슬 無窮이라
 말을하노
 만코만은 世上사름 다시生覺 식다르쇼
 限量업는 天地父母 至恩至德 生覺하니

無窮无窮 限量업네
理致理字 웃지하야 그러흔고
만코만은 더사롬들 仔細生覺 料度히서
一一詳考 比히보쇼
天地陰陽 主人되야 人間萬物 製造하스
不息循環 새를싸라 無窮无窮 行히갈제
無窮无窮 造化로써 許多萬物 父母되니
其理其然 노리숯혀 父母恩德 감허보세
父母恩德 감즈하니 孝敬二字 第一일세
그는또흔 그러하나 傳히오는 世上말에
三十三天 닐커러서 셔루셔루 말을하나
天地父母 알엇든가 天地父母 누실넌고
化生萬物 하옵시는 天地父母 말하조면
震長男이 아니시며 巽長女가 그안인가
長男長女 夫婦之道 人間萬物 製造할제
五行秀氣 먼저하스 사롬이라 일흠하고
奉祀上帝 子孫定코 第次따라 萬物製造
고루하스 사롬의계 붓첫나니 其理其然
식다르니 萬物主人 사롬이요 사롬主人
天地父母 長男長女 的實하다 天生萬民
道又生 하옵실제 次序之別 定흔理致
이와갓치 定히씨니 浩浩茫茫 널은天地
만코만은 世上사롬 사롬마도 언의누가
奉祀孫이 안될사롬 어디잇나 사롬마도
하늘님前 子孫되야 父母님前 奉祀孫
다되나니 사롬사롬 하늘님前 奉祀孫이
다되씨니 이를좃쳐 生覺히서 孝悌로써
至誠無息 섬겨씨면 子孫道理 될써시니
疑訝之心 두지말고 一一施行 밋어보쇼
古言에 닐너씨되 萬物之衆 그가온디
惟人이 最貴者는 이를두고 닐음이라
理致理字 그러므로 自古聖人 니어나서
最貴之人 뜻슬알고 長男長女 天地父母
愛慈之心 至恩至德 萬分之一 감허볼식
뜻슬두고 生覺히서 子孫道理 하조하고
孝悌之道 베푸라서 學不厭을 爲主삼고
敎不倦을 심써할제 敬天順天 안일넌가
父母섬겨 孝行之道 三綱五倫 밝혀두고

仁義禮智 四端미워 禮義廉恥 定히두고
 元亨利貞 行히갈제 男女夫婦 內外定코
 夫和婦順 定히두고 同氣連枝 理致미워
 兄弟友愛 磨鍊하고 老少冠童 第次미워
 長幼有序 밝히려 敬長之道 行히가고
 朋友有信 그가온디 責善之道 배푸라서
 서루서루 曉諭하야 學而時習 날노히서
 明明其德 하여갈제 男女有別 定히두고
 孝敬二字 버리삼고 天地父母 好生之心
 一一詳考 식다려서 天理節文 미워보니
 人倫之道 至重함은 孝悌之道 쓴인故로
 聖人聖人 니어나서 繼天立極 말을히여
 傳之又傳 내려와서 至今까지 傳히나니
 사롬사롬 生覺하쇼 開明開明 씨들면서
 開明二字 말을하나 開明이 무어신고
 나는都是 모를너라 남의父母 子孫되야
 子孫職分 직히니서 人事道理 하즈하면
 天地父母 至重하니 至重헌 父母님前
 至誠至極 孝行하야 孝道로써 開明하면
 그開明이 分明하지 다른開明 쏘잇는가
 天地人 三才미워 父子人倫 그가온디
 孝悌밧고 開明업고 開明밧고 孝悌업네
 天下萬國 널은쌍에 富貴貧賤 만은사롬
 開明理致 다알엇나 어셔어셔 開明理致
 다알어서 至誠至孝 極히하야 天地父母
 어진마음 安樂하게 모시오고 同氣連枝
 理致미워 四海八方 만은사롬 兄弟友愛
 하즈하고 開明理致 曉諭히서 서루서루
 傳히니여 사롬사롬 父母님前 孝子孝婦
 다되오면 그런開明 쏘잇는가
 開明理致 더욱조타 開明理致 그러하니
 사롬사롬 어셔어셔 開明하쇼 開明時期
 때왔시니 失時말고 孝悌로써 開明하쇼
 孝悌로써 開明하면 樂堂堂이 다될테니
 그리알고 施行하쇼 그는쏘흔 그러하나
 傳히오는 世上말에 共産共産 말을하니
 共産뜻슬 알아논가 사롬사롬 共産뜻슬
 알았거든 어셔어셔 共産하쇼

共産이 무어신고 共産理致 뜻슬알고
 大綱大綱 말하즈니 共産理致 더욱조타
 仔細보고 生覺하쇼 天地父母 好生之心
 三才人倫 고루하야 化育萬物 共産이요
 其理其然 理致로서 化育萬物 子孫되야
 孝道로써 共産이요 許多萬物 數多하나
 天地一氣 서루난워 서루서루 나온빅니
 同氣連枝 生覺하야 友愛로써 共産일세
 共産理致 그러하니 사롬마도 生覺히서
 愛而育之 父母님前 至誠至孝 심씨히여
 孝道로써 共産하고 四海八方 만은사롬
 皆爲兄弟 分明하니 兄弟之誼 뜻슬알고
 友愛로써 共産하세 天地正位 定헌共産
 이와갓치 定히씨니 定헌共産 違其말고
 어서어서 共産하세 共産共産 조타하나
 孝悌밧기 共産업고 共産밧기 友愛업네
 理致理字 미루워서 그根本을 生覺하니
 天地萬物 만타히도 父子一身 그썸이니
 父慈子孝 웃씀이요 사롬사롬 比히보면
 兄弟一身 그썸이니 相救之道 生覺하야
 友愛二字 웃씀일세 憲父母 氣運난워
 憲父母 子孫되야 憲父母 섬기면서
 憲집에 居히나서 무얼노써 共産할쏘
 孝悌로써 父母섬겨 共産하고 友愛로써
 兄弟섬겨 相救之道 共産하세
 共産理致 그러컨만 愛怛하다 世上사롬
 그런理致 모르고서 天下萬國 널은쌍에
 만코만은 世上사롬 自天子達乎庶人 말헌되도
 다갓치 天地父母 子孫일세 사롬사롬
 天地父母 子孫되야 子孫道理 하여씨면
 사롬마도 조으련만 그리할줄 모르고서
 人間汚慾 貪心타가 天性之稟 다일코서
 父母恩德 背叛하고 兄弟友愛 損傷할제
 氣勢로써 主張하며 依勢로써 行히갈제
 나잘난닉 너잘난닉 내나라니 네나라니
 내쌍이니 네쌍이니 나눴흐니 너눴흐니
 日日時時 그썸이니 너의爭論 可笑로다
 잘났다 말을하니 잘난거슨 무어시며

못난거슨 무어신고 사롬사롬
 天地父母 血氣난위 셔루셔루 化히날제
 四大五常 갖춧나니 잘난사롬 더갖추며
 못난사롬 덜갖천나 愛怛다 너의爭論
 그런是非 말으셔라 그는쏘흔 그러하나
 나라나라 말을히셔 나라로써 競爭하니
 그런昏夢 쏘잇는가 天地父母 胞胎中에
 너와나와 갖치살며 네나라니 내나라니
 셔루셔루 말을하니 네나라이 어딴씨며
 내나라이 어딴잇노 父母의 子孫되야
 네것내것 競爭하니 그런昏夢 쏘잇는가
 어셔어셔 昏夢익쇼 그는쏘흔 그러하나
 어리석은 더사롬들 내쌍이니 네쌍이니
 쌍을두고 爭論하니 그도쏘흔 昏夢이다
 子乃 몸 化히날제 쌍이라 일흠하고
 지고왔나 니고왔나 佩物이라 차고왔나
 手巾이라 쥐고왔나 愛怛하다 愛怛하다
 너의사롬 愛怛하다 自古聖人 傳흔말숨
 乾父坤母 닐너씨니 쌍任者 알연마는
 웃지그리 埋沒흔고 어셔生覺 익쳐셔라
 天地始判 磨鍊後의 自古帝王 니어나셔
 나라나라 닳뵈씨되 至今까지 傳히옴이
 元亨利貞 天國이지 帝王之國 어딴씨며
 내쌍니쌍 말을하나 사롬쌍이 어딴잇나
 그런理致 모르고셔 부지럽시 虛慾니여
 天性을 害치마쇼 無知흔 더사롬들
 日日時時 하는舉動 天性을 專여일코
 莫知所向 行하다가 저죽느줄 저모르네
 御化世上 사롬들아 다시生覺 가즈셔라
 나눴흐니 너눴흐니 知識조니 勇猛조니
 셔루셔루 말을하니 知識이 무어시며
 勇猛이 무어시며 놉흔거시 무어신고
 나는都是 모를너라 知識을 말흔디도
 남의父母 子孫되야 至誠至極 孝行히셔
 子孫道理 極盡하야 그게쏘흔 知識이요
 勇猛으로 말흔디도 父母兄弟 理致알고
 글은일을 저바리고 올흔일을 崇尚히셔
 쉬지말고 一一施行 하는거시 勇猛이요

늬흘尊字 닐커러셔 늬흔걸노 말할진디
 昏父母의 子孫으로 다른道理 바이업네
 父母섬겨 늬허지네 사롬사롬 하늘님前
 奉祀孫은 다되지만 그中에 聖賢君子
 그理致를 먼저알고 씩다라셔 奉祀上帝
 孝行할제 敬天順天 하여닉여 繼天立極
 하온法을 自古由來 만든사롬 사롬마도
 스승삼어 一一詳考 效則히셔 父母恩功
 갑조하고 一一習道 그가온디 聖人聖人
 니어나셔 大知達孝 직허두고 繼天立極
 行하면서 먼저聖人 推尊하여 스승이라
 일흠하고 父母갓치 섬기나니 이럴쫓쳐
 生覺하니 만코만은 사롬中에 늬흔사롬
 말할진디 聖人外에 다시업네 이런理致
 모르고셔 子乃사롬 무얼노써 늬다하노
 나는都是 모를너라 너의所見 불작시면
 不祥코 可憐하다 自古及今 帝王之道
 늬다흔들 언의後生 效則히여 스승스승
 삼어두고 父母갓치 섬기든가 나는都是
 모르것네 萬乘天子 富貴로써 늬다흔들
 富貴로써 스승될식 富貴로는 남의스승
 못되나니 如干富貴 잇드리도 無道히셔
 남의스승 못되오면 무얼보고 늬다할식
 이러므로 夏桀商紂 天子라고 일흠하되
 匹夫에다 比히엇고 萬乘天子 秦始皇
 威嚴조타 조랑하며 自稱늬다 닐커르되
 世上사롬 닐으기를 暴惡無道 하다하고
 至今까지 傳히오니 天子라고 늬허는가
 陰陽造化 가는질이 이와갓치 明明키로
 三皇五帝 聖賢들도 尊卑貴賤 爭論안코
 父母섬겨 道德닥거 敬天順天 하신빅니
 이럴쫓쳐 씩다라셔 사롬사롬 만든사롬
 사롬마도 古今聖人 效則하여 孝道로써
 開明하고 孝道로써 共産히셔 道德君子
 되야보세 台乃말 헛말인가 天開於子
 먼저하고 地關於丑 支次하야 人間行道
 하옵신法 自古事蹟 歷歷히 다솥히지
 못하고셔 大綱大綱 記錄하여 大綱大綱

말을하니 大綱大綱 畚허니셔 大綱理致
 子乃뜻세 彷彿커든 아니잇고 施行할스
 仔細生覺 드러보소 天地始判 磨鍊後에
 하늘님 造化로서 人間萬物 製造할제
 사롬사롬 만든사롬 一氣中에 化히나서
 서루서루 남과갓치 조라드니
 하늘님 어진父母 四時盛衰 定히두고
 春秋迭代 磨鍊히셔 不遷不易 가는뜻슬
 許多子孫 教育次로 때를따라 龍馬河圖
 出送하니 언의누가 龍馬河圖 그림보고
 循環之理 씩다를스 만코만은 그사롬이
 하늘子孫 다되지만 草野人民 되야나서
 心工업는 그所見의 사롬마도 河圖보고
 하늘父母 至極한뜻 얼는얼는 다알손가
 다알지 못흔바를 그中에 伏羲氏라
 하는兩班 河圖理致 아옵시고 하늘父母
 뜻슬밧아 孝道로써 敬天順天 하신故로
 木德以王 하신法을 至今까지 傳히오되
 聖人聖字 놓허잇네 그根源을 因緣히여
 次次次次 天理따라 理致밀워 聖人聖人
 니어나니 先聖니어 後聖일세 後聖이라
 하는兩班 뒤실년고 神農氏가 그안인가
 神農氏라 하는兩班 天地雨露 造化中에
 남과갓치 誕生히셔 그러그러 조라드니
 至極흔 하늘님前 春生夏長 秋收冬藏
 理致밀워 씩닷고서 農事法을 磨鍊하여
 以教後生 傳히주고 百草를 맛슬보고
 醫藥을 磨鍊히셔 博施濟衆 하여니여
 敬天順天 하신故로 至今까지 傳히오되
 神農氏라 일흠하고 聖人聖字 代를밧쳐
 서루서루 놓흔道德 效則하네 그는또흔
 그러하나 軒轅氏라 하는兩班 사롬사롬
 석겨나서 理致따라 長養트니 天性之稟
 修煉타가 河圖보고 天理따라 理致알고
 送舊迎新 하즈하고 制作舟車 하여니여
 以濟不通 하옵시고 曆算을 밝혀니여
 節候좃쳐 理致定코 逆天하는 無道者를
 一一懲治 하옵시고 順天하는 有德君子

濟濟이 건저니여 敬天順天 하신故로
 軒轅氏 늙흔道德 사롬사롬 讚頌일세
 御化世上 사롬덜아 三皇聖德 그러하나
 五帝之德 구경하소 金天氏와 高陽氏와
 高辛氏와 陶唐氏와 有虞氏를 말흔되도
 만코만은 사롬中에 百姓類에 석겨나서
 百姓類에 석겨크다 天性之稟 곳게직혀
 修煉誠心 工夫타가 河圖理致 天理循環
 씩닷고서 次次次次 때를따라 時中時中
 施行기로 繼天立極 自然되야 五帝聖德
 조타하고 사롬사롬 不忘千秋 頌德일세
 그러하나 有虞氏로 말하즈면 歷山の
 밧슬갈아 농업조심 하섯시니 초야농부
 그아니며 河濱에 독을구어 독장스로
 生涯를 하섯시니 土器店의 독장스가
 그아니며 雷澤에 고기잡어 生鮮팔아
 生涯를 하섯시니 江湖漁父 그안인가
 그러그러 지닌다가 陶唐氏 반기만나
 惟精惟一 傳授心法 밧어다가 至誠無息
 修煉하소 龍馬河圖 밝은道德 天性之稟
 더밝히여 大知達孝 하옵실제 世上사롬
 貴爲天子 富有四海 날커르되 有虞氏
 어진마음 貴爲天子 貴이아지 아니시며
 富有四海 富로아지 아니시고 고은안해
 娥皇女英 들잇스되 고은줄을 모르시고
 平生所願 恨하는바 父母뜻을 順케밧어
 一一施行 못다할가 耿耿不寐 恨흔故로
 堯舜之道 孝悌而已라 至今까지 사롬사롬
 效則하여 날컷나니
 御化世上 사롬덜아 三皇五帝 늙흔道德
 이와갓치 늙거니와 夏殷周 三代之德
 隆盛하소 後世莫及 傳히오되
 禹湯文武 말흔되도 受命于天 化히날제
 四大五常 고루갓취 萬人百姓 同類로서
 남과갓치 化히나서 남과갓치 조라다가
 河圖理致 根源밀워 天理따라 施行할제
 夏禹氏라 하는兩班 有虞氏 반기만나
 傳授心法 밧어다가 修煉誠心 工夫타가

天性自然 回復되야 順隨天時 하라할제
 堯舜教訓 다시밧어 九年洪水 때를알고
 天命밧어 治水할제 億兆蒼生 건지라고
 好生之心 버리삼고 周流四海 두루거러
 三過其門 不入하스 敬天順天 하신故로
 明天이 스랑하스 때를니어 일씩실제
 五行相生 順數之理 午丁時가 거의훈가
 一陰始生 때가온가 五行相克 逆數之理
 龜尾洛書 出送하니 만코만은 사롬中에
 夏禹氏 어진마음 洛書之理 숭히신後
 後天之數 싣닷고서 一一成出 그러니여
 以教後生 傳히주고 天地父母 싣슬밧아
 一一施行 하조하고 사롬사롬 教育할제
 敬畏之心 직히두고 一饋十起 하여니여
 衆生濟渡 하옵실제 人有過失 말을하면
 下車拜謁 하섯시니 그런聖德 싣잇는가
 夏禹氏德 그러하나 成湯之德 드러보소
 龍馬河圖 順數之理 龜尾洛書 逆數之理
 相應相助 比히여서 午未申時 當히쓴가
 六月장마 다지나고 七月旱災 當히쓴가
 許多만은 사롬中에 殷王成湯 어진마음
 天命밧어 때를알고 夏桀의 無道함을
 물니치고 七年大旱 當하신後 萬物枯渴
 거의되미 天時싸라 施行次로 禱雨栞林
 비를빌제 때를밧춰 本形으로 祭需밧쳐
 感應之理 빌어닐제 剪爪斷髮 身嬰白茅
 고루갓춰 至誠感天 發願하니 天神이
 感應하스 大雨方數千里를 暫時間에 베푸라셔
 萬物枯渴 免케하니
 이런일노 불작시면 天德니여 聖人之德
 그안인가 殷王成湯 높흔道德 그러하나
 御化世上 사롬덜아 싣다시 生覺하와
 文武之德 드러보소 西侯伯 周文王이
 伏羲氏 先天八卦 五行相生 順數之理
 乾道成男 三十二卦 定하시고 夏禹氏
 後天八卦 五行相克 逆數之理 坤道成女
 三十二卦 定하신後 乾坤之道 습히여서
 六十四卦 定히노코 三百八十 四爻뵈쳐

天地之道 循環之理 사롬마도 알게하스
 一一教育 심쓰시니 文王聖德 至重하다
 文王之德 그러하나 武王之德 구경하소
 天命所施 때를알고 不失時中 施行할제
 不期會者 八百餘國 거나리고 一着戎衣
 갓추시고 太公兵法 압흘세워 一怒以安
 天下之民 하옵실제 午未申時 七月運이
 다盡하고 酉로酉時 八月運이 旺하든가
 暴惡無道 더商紂를 天命받아 물니치고
 億兆蒼生 濟渡하니 敬天順天 分明하느
 그일더일 두로숯혀 大綱大綱 말하즈니
 堯舜之世 臯夔稷契 그先生과 禹湯之世
 伊尹傳說 그先生과 文武之世 周公名公
 箕子微子 그先生들 萬人百姓 갓치나서
 貌樣으로 말할진디 남다른바 업지마는
 人間汚慾 저바리고 誠心修煉 工夫심써
 하눌父母 뜻슬알고 孝行之心 곳게직혀
 堯舜禹湯 文武之德 極히도와 하눌마음
 편케하고 數多蒼生 教育하야 敬天順天
 하게하니 聖人스승 그아니며 魯나라
 孔夫子로 말흔디도 草野에 ぞ라날때
 誕生後 三歲되야 血肉父親 早失하고
 母親으게 依託하야 그러그러 ぞ라나니
 貧賤者가 그안인가 貧賤흔 그몸으로
 周易이라 하는書冊 至誠無息 工夫하다
 韋編三絶 하옵신後 乾坤之道 定흔理致
 六十四卦 그가온디 三百八十 四爻뵈쳐
 循環之理 理致알고 祖述堯舜 하옵시며
 文武之德 讚하옵서 繼往聖開來學 하신故로
 後生이 닐으기를 孔夫子之 聖德이
 反有賢於 堯舜이라 닐너씨되 龍馬河圖
 先天之數 夕陽運을 벗어나스 理致로서
 轍環天下 하옵시되 不得其位 하셔잇고
 膝下弟子 三千之徒 草野人民 되야나서
 因苦하기 싹업스되 夫子教訓 밧아니여
 日日時時 習道하다 七十二人 道通히셔
 天地度數 盈虛之理 밝은道德 더밝히여
 人事所爲 낫타닉서 以教後生 傳히씨니

그아니 聖德이며 子思孟子 그때時運
 니어나서 早失父母 하온몸이 天地父母
 恩德으로 그러그러 조라날제 受命于天
 밧은稟性 一一習道 심쓰다가 天恩地德
 식닷고서 自古聖德 니어니어 사름사름
 傳히여서 至今까지 遺傳하니 스승스승
 아니신가
 御化世上 만은사름 仔細보고 料度하소
 어리석은 昏乃사름 이일더일 숲히다가
 三才五行 和혼몸이 自古歷代 숲혀보니
 다른道理 바이업니 通古今 넓은天地
 만코만은 世上사름 天地父母 血氣밧어
 너도나고 나도나서 父母恩德 감조하고
 出世人間 하온몸이 놓흔사름 짜로업고
 낙진사름 썩로업네 天地父母 뜻슬밧어
 至誠至極 孝흔사름 사름마도 繼天立極
 聖人되야 사름中에 놓하잇고 天地父母
 뜻모르고 自行自止 날노하여 不順道德
 하든사름 사름마도 賤히엿네
 愛怛하다 愛怛하다 世上사름 愛怛하다
 이런理致 알거드면 天恩地德 식다라서
 孜孜爲善 하련마는 그리할줄 모르고서
 孜孜爲利 심쓰다가 사름사름 賤히지니
 그아니 愛怛헛가 웃썩이는 聖人되야
 萬世無疆 傳히잇고 웃썩이는 凡夫되야
 出世痕迹 바이업노 이럴쫓쳐 싱각히서
 兢兢業業 닥거셔라 사름의 하는道理
 父母섬겨 孝行박고 다시업고
 同氣連枝 相救之道 友愛박고 할써업네
 古今理致 一般이니 어셔빅워 孝行하고
 어셔빅워 友愛하소 天地度數 盈虛之理
 안빅우면 모르나니 심써빅워 行히볼썩
 그는또흔 그러하나 乾坤之道 數迭하니
 陽旋陰旋 兩事中에 相生之理 先天之數
 隱伏신가 相克之理 後天之數 興旺신가
 만코만은 사름中에 釋迦如來 부처님이
 하늘님뜻 먼저알고 順受天命 하조하고
 帝釋天宮 하늘님을 一心으로 모시고서

隱居山林 하와셔루 至誠至極 孝行하야
 極樂世界 되지마는 愛怛할스 世上사름
 그런運數 모르고서 夏殷周 三代以後
 龜尾洛書 逆數之行 相克之理 이슬니어
 四海八方 널은쌍에 사름사름 器局되로
 搖動할제 그舉動 可觀일세
 百千萬邦 늘어안저 구억구억 차지하고
 나라나라 일흥히며 競爭器局 날노하니
 戰場不熄 그안인가 愛怛하다 너의사름
 웃지그리 埋沒흔고 日日時時 하는말이
 英雄이니 知識이니 造化이니 才調이니
 名將이니 能力이니 말을히셔 大元帥니
 副元帥니 大將이니 中軍이니 先鋒이니
 後鋒이니 말을하고 兵卒이니 士卒이니
 셔루셔루 聚黨하여 攻鬪爭局 일숨으나
 人間萬事 되는바가 人力으로 아니되고
 天理로써 되는빅니 너의勇猛 밋지마라
 銅頭鐵額 그強함도 쓸곳이 바이업고
 項莊의 날닌칼도 던질곳이 업셔써든
 하물며 이世上에 許多사름 사름勇猛
 쓸되잇나 仔細듯고 生覺하소
 造化造化 말을히도 하늘님 造化로써
 人間萬物 製造하고 知識知識 말을하나
 하늘님 知識으로 四時盛衰 때를알고
 不息循環 行히가고 能力能力 말을하나
 하늘님 能力으로 送舊迎新 違其안고
 行하나니 念念不忘 식다르소
 사름사름 만은사름 帝王之道 조타하나
 조타하는 帝王之道 하늘님이 때를짜라
 任意用之 하는빅니 子乃勇猛 밋지말고
 子乃手段 즈랑마소 手段勇猛 즈랑타가
 得罪於天 되거드면 以理罰之 當할세요
 得罪於人 하거드면 以刑治之 當할테니
 부되부되 生覺히셔 修心修德 極히하여
 敬天順天 하여보세 是方時節 말할진되
 先天後天 運이亦是 다盡하고 도로先天
 回復되야 木德以旺 때왓시니 때를알고
 修道하여 사름사름 만은사름 사름마도

繼天立極 히어니여 道德君子 되어보세
 台乃말 헛말인가 仔細生覺 比히보소
 三皇五帝 말흔디도 天地父母 뜻슬니어
 至誠至孝 極히하스 敬天順天 하신道德
 그道德이 남어잇서 사롬사롬 效則히서
 至今까지 傳히오지 帝王이라 놉씩하며
 富하다고 貴타히나 네로쫓쳐 사롬道理
 天地父母 至恩至德 萬分之一 감조하고
 誠之又誠 恭敬히서 大知達孝 놉허잇지
 다른道理 바이업네 貴하다 말을하며
 富하다 닐커르되 春秋之 開落으로
 順隨天理 一去後에 남은富貴 어딴이나
 空手來 空手去 사롬마도 그뿐일세
 尊卑貴賤 말을하나 尊貴가 무어시며
 卑賤이 무어신고 一生一死 다갓흔디
 孝不孝를 닐커러서 貴賤之殊 定히나니
 그러므로 三代之德 隆盛하스 後世莫及
 傳히씨되 敬天之禮 그뿐일세
 愛怛하다 世上사롬 무얼노써 爭論하노
 다시生覺 드러보소 陶唐氏 어진마음
 天下萬民 爲히여서 어진사롬 求하실제
 巢父許由 차저가서 天下를 傳히주되
 人間富貴 뜻시업서 밧지안코 辭讓기로
 그道德을 淸絶하다 닐커러서 至今까지
 傳히오고
 堯舜之世 皐夔稷契과 夏禹商湯之世 伊尹傳說과
 文武之世 周公召公과 周衰之世 孔顔曾
 子思孟子 列位聖人 하신歷史 歷歷히
 보드라도 帝王之位 居하시지 안히씨되
 天性之稟 修煉하스 繼天立極 道를닥거
 體天行道 하옵실제 繼往聖開來學 히어니여
 나는後生 가랏쳐서 사롬사롬 德이되게
 하옵시니 恩大德重 泰山이라
 이런理致 모르고서 어리석은 玆사롬덜
 各言各知 爭論타가 人間汚慾 沉惑되야
 空老歲月 무슴이며 一片修心 바이업시
 亂法亂道 行하다가 저죽느줄 제모르니
 그아니 可憐헝가 自古及今 世上理致

그러하니 사롬마도 安心正氣 修身히서
順隨天理 가자셔라 順隨天理 가거드면
乃成君子 다될테니 그리알고 施行할가
龍潭遺辭之第二十九開明共産歌卷一終

[현대역]

開明共産歌

개명공산가(開明共産歌)

어화(御化)1 세상(世上) 사람들아 천견박식(淺見薄識)2 이내(台乃)3사람
 불연기연(不然其然)4 그 가운데 부야흥야(賦也興也)5 비(比)하여서6
 노래 한 장(章) 지었으니 동요(童謠)같이 알지말고
 자세(仔細)히 보고 요탁(料度)7하소
 무사(無事)한 이내(台乃)사람 수명우천(受命于天)8 받은 몸이
 운수청림(運數靑林)9 좋은 경(景)10의 무궁락(無窮樂)11에 흥(興)을 일워
 무궁무궁(無窮无窮)12 닦아내어 무궁무궁(無窮无窮) 깨달으니
 무궁무궁(無窮无窮) 내 아닌가
 무궁(無窮)한 이내(台乃)사람 무궁무궁(無窮无窮) 말을 하여
 무궁무궁(無窮无窮) 일컬으니 그 무엇을 무궁(無窮)이라
 말을 하노
 많고 많은 세상(世上)사람 다시 생각(生覺) 깨달으소
 한량(限量)13 없는 천지부모(天地父母) 지은지덕(至恩至德)14 생각(生覺)하니
 무궁무궁(無窮无窮)15 한량(限量) 없네
 이치리자(理致理字)16 어찌하여 그러하고
 많고 많은 저 사람들 자세(仔細)히 생각(生覺) 요탁(料度)17해서
 일일상고(一一詳考)18 비(比)해 보소19
 천지음양(天地陰陽) 주인(主人)되어 인간만물(人間萬物) 제조(製造)20하시어
 불식순환(不息循環)21 때를 따라 무궁무궁(無窮无窮) 행해갈 제
 무궁무궁(無窮无窮) 조화(造化)22로써 허다만물(許多萬物)23 부모(父母)되니
 기리기연(其理其然)24 노래로 살피 부모은덕(父母恩德) 갠아보세
 부모은덕(父母恩德) 갠자하니 효경이자(孝敬二字)25 제일(第一)일세
 그는 또한 그러하나 전(傳)해 오는 세상(世上) 말에
 삼십삼천(三十三天)26 일컬어서 서로서로 말을 하나
 천지부모(天地父母) 알았든가 천지부모(天地父母) 누구신가
 화생만물(化生萬物)27 하시는 천지부모(天地父母) 말하자면
 진장남(震長男)이 아니시며 손장녀(巽長女)28가 그 아닌가
 장남장녀(長男長女)29 부부지도(夫婦之道)30 인간만물(人間萬物) 제조(製造)할제
 오행수기(五行秀氣)31 먼저 하시어 사람이라 이름하고
 봉사상제(奉祀上帝)32 자손(子孫) 정(定)하고 제차(第次)33따라 만물제조(萬物製造)
 고루34 하시어 사람에게 부쳤으니 기리기연(其理其然)35

깨달으니 만물주인(萬物主人) 사람이요 사람 주인(主人)
 천지부모(天地父母) 장남장녀(長男長女) 적실(的實)³⁶하다
 천생만민도우생(天生萬民道又生)³⁷ 하실 적에 차서지별(次序之別)³⁸ 정(定)한 이치(理致)
 이와 같이 정(定)했으니 호호망망(浩浩茫茫)³⁹ 넓은 천지(天地)
 많고 많은 세상(世上)사람 사람마다 어느 누가
 봉사손(奉祀孫)⁴⁰이 안 될 사람 어디 있나 사람마다
 하느님 전(前)⁴¹ 자손(子孫)되어 부모(父母)님 전(前) 봉사손(奉祀孫)
 다 되나니 사람사람 하느님 전(前) 봉사손(奉祀孫)이
 다 되었으니 이를 좇아 생각(生覺)해서 효제(孝悌)⁴²로써
 지성무식(至誠無息)⁴³ 섬기면 자손도리(子孫道理) 될 것이니
 의아지심(疑訝之心)⁴⁴ 두지 말고 일일시행(一一施行)⁴⁵ 믿어보소
 고언(古言)⁴⁶에 이르기를 만물지중(萬物之衆) 그 가운데
 유인(惟人)⁴⁷이⁴⁷ 최귀자(最貴者)⁴⁸는 이를 두고 이름이라
 이치리자(理致理字)⁴⁹ 그러므로 자고(自古)⁵⁰ 성인(聖人) 이어 나서
 최귀지인(最貴之人)⁵¹ 뜻을 알고 장남장녀(長男長女)⁵² 천지부모(天地父母)
 애자지심(愛慈之心)⁵³ 지은지덕(至恩至德)⁵⁴ 만분지일(萬分之一) 갇아볼까
 뜻을 두고 생각(生覺)해서 자손도리(子孫道理)하자 하고
 효제지도(孝悌之道)⁵⁵ 베풀어서 학불염(學不厭)⁵⁶을 위주(爲主)⁵⁷삼고
 교불권(敎不倦)⁵⁸을 힘써할 제 경천순천(敬天順天)⁵⁹ 아닐런가
 부모(父母) 섬겨 효행지도(孝行之道)⁶⁰ 삼강오륜(三綱五倫)⁶¹ 밝혀두고
 인의예지(仁義禮智)⁶² 사단(四端)⁶³ 미뤄⁶⁴ 예의염치(禮義廉恥)⁶⁵ 정(定)해 두고
 원형리정(元亨利貞)⁶⁶ 행(行)해갈 제 남녀부부(男女夫婦) 내외(內外)⁶⁷ 정(定)하고
 부화부순(夫和婦順)⁶⁸ 정(定)해 두고 동기연지(同氣連枝)⁶⁹ 이치(理致)에 미루어
 형제우애(兄弟友愛) 마련(磨鍊)⁷⁰하고 노소관동(老少冠童)⁷¹ 제차(第次)미뤄⁷²
 장유유서(長幼有序)⁷³ 밝혀내어 경장지도(敬長之道)⁷⁴ 행(行)해 가고
 봉우유신(朋友有信)⁷⁵ 그 가운데 책선지도(責善之道)⁷⁶ 베풀어서
 서로서로 효유(曉諭)⁷⁷하여 학이시습(學而時習)⁷⁸ 날로 해서
 명명기덕(明明其德)⁷⁹ 하여갈 제 남녀유별(男女有別)⁸⁰ 정(定)해 두고
 효경이자(孝敬二字)⁸¹ 버리⁸² 삼고 천지부모(天地父母) 호생지심(好生之心)⁸³
 일일상고(一一詳考)⁸⁴ 깨달아서 천리절문(天理節文)⁸⁵ 미뤄보니
 인륜지도(人倫之道)⁸⁶ 지중(至重)⁸⁷함은 효제지도(孝悌之道)⁸⁸ 뿐인 고(故)로⁸⁹
 성인성인(聖人聖人) 이어 나서 계천립극(繼天立極)⁹⁰ 말을 하여
 전지우전(傳之又傳)⁹¹ 내려 와서 지금(至今)까지 전(傳)했으니
 사람사람 생각(生覺)하소 개명개명(開明開明) 떠들면서
 개명이자(開明二字)⁹² 말을 하나 개명(開明)⁹³이 무엇인가
 나는 도시(都是)⁹⁴ 모를러라 남의 부모(父母) 자손(子孫)되어
 자손직분(子孫職分)⁹⁵ 지켜내어 인사도리(人事道理)⁹⁶ 하자 하면
 천지부모(天地父母) 지중(至重)⁹⁷하니 지중(至重)한 부모(父母)님 전(前)

지성지극(至誠至極)98 효행(孝行)하여 효도(孝道)로써 개명(開明)99하면
 그 개명(開明)이 분명(分明)하지 다른 개명(開明) 또 있는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100미뤄 부자인륜(父子人倫)101 그 가운데
 효제(孝悌)102 밖에 개명(開明)없고 개명(開明) 밖에 효제(孝悌)없네
 천하만국(天下萬國) 넓은 땅에 부귀빈천(富貴貧賤)103 많은 사람
 개명이치(開明理致)104 다 알았나 어서어서 개명이치(開明理致)
 다 알아서 지성지효(至誠至孝)105 극(極)히106 하여 천지부모(天地父母)
 어진 마음 안락(安樂)하게 모시고 동기연지(同氣連枝)107
 이치(理致)에 미루어 사해팔방(四海八方)108 많은 사람 형제우애(兄弟友愛)
 하자하고 개명이치(開明理致) 효유(曉諭)109해서 서로서로
 전(傳)해 내어 사람사람 부모(父母)님 전(前) 효자효부(孝子孝婦)110
 다 되면 그런 개명(開明) 또 있는가
 개명이치(開明理致)111 더욱 좋다 개명이치(開明理致) 그러하니
 사람사람 어서어서 개명(開明)하소 개명시기(開明時期)112
 때 왔으니 실시(失時)113말고 효제(孝悌)114로써 개명(開明)하소
 효제(孝悌)로써 개명(開明)하면 낙당당(樂堂堂)115이 다 될테니
 그리 알고 시행(施行)116하소 그는 또한 그러하나
 전(傳)해 오는 세상(世上) 말에 공산공산(共産共産) 말을 하니
 공산(共産) 뜻을 알았는가 사람사람 공산(共産) 뜻을
 알았거든 어서어서 공산(共産)하소
 공산(共産)이 무엇인고 공산이치(共産理致)117 뜻을 알고
 대강대강(大綱大綱)118 말하자니 공산이치(共産理致) 더욱 좋다
 자세(仔細)히 보고 생각(生覺)하소 천지부모(天地父母) 호생지심(好生之心)119
 삼재인륜(三才人倫)120 고루하여 화육만물(化育萬物)121 공산(共産)이요
 기리기연(其理其然)122 이치(理致)로서 화육만물(化育萬物) 자손(子孫)되어
 효도(孝道)로써 공산(共産)이요 허다만물(許多萬物)123 수다(數多)124하나
 천지일기(天地一氣)125 서로 나눠 서로서로 나온 바이니
 동기연지(同氣連枝)126 생각(生覺)하여 우애(友愛)로써 공산(共産)일세
 공산이치(共産理致) 그러하니 사람마다 생각(生覺)해서
 애이육지(愛而育之)127 부모(父母)님 전(前) 지성지효(至誠至孝)128 힘써하여
 효도(孝道)로써 공산(共産)하고 사해팔방(四海八方)129 많은 사람
 개위형제(皆爲兄弟)130 분명(分明)하니 형제지의(兄弟之誼)131 뜻을 알고
 우애(友愛)로써 공산(共産)하세 천지정위(天地正位)132 정(定)한 공산(共産)
 이와 같이 정(定)했으니 정(定)한 공산(共産) 위기(違其)133말고
 어서어서 공산(共産)하세 공산공산(共産共産) 좋다 하나
 효제(孝悌)134 밖에 공산(共産)없고 공산(共産) 밖에 우애(友愛)없네
 이치리자(理致理字)135 미루어서 그 근본(根本)을 생각(生覺)하니
 천지만물(天地萬物) 많다 해도 부자일신(父子一身)136 그 뿐이니

부자자효(父慈子孝)137 으뜸이요 사람사람 비(比)해 보면138
 형제일신(兄弟一身)139 그 뿐이니 상구지도(相救之道)140 생각(生覺)하여
 우애이자(友愛二字) 으뜸일세 한 부모(父母) 기운(氣運) 나눠
 한 부모(父母) 자손(子孫)되어 한 부모(父母) 섬기면서
 한 집에 거(居)해 나서 무엇으로 공산(共産)할까
 효제(孝悌)로써 부모(父母) 섬겨 공산(共産)하고 우애(友愛)로써
 형제(兄弟) 섬겨 상구지도(相救之道) 공산(共産)하세
 공산이치(共産理致) 그럴건만 애달(愛怛)141하다 세상(世上) 사람
 그런 이치(理致) 모르고서 천하만국(天下萬國) 넓은 땅에
 많고 많은 세상(世上)사람 자천자달호서인(自天子達乎庶人)142 말한대도
 다 같이 천지부모(天地父母) 자손(子孫)일세 사람사람
 천지부모(天地父母) 자손(子孫)되어 자손도리(子孫道理) 하였으면
 사람마다 졸으련만 그리할 줄 모르고서
 인간오욕(人間汚慾)143 탐심(貪心)144타가 천성지품(天性之稟)145 다 잃고서
 부모은덕(父母恩德) 배반(背叛)하고 형제우애(兄弟友愛) 손상(損傷)할 제
 기세(氣勢)로써 주장(主張)하며 의세(依勢)146로써 행(行)해갈 제
 나 잘났니 너 잘났니 내 나라니 네 나라니
 내 땅이니 네 땅이니 나 높으니 너 높으니
 일일시시(日日時時)147 그 뿐이니 너의 쟁론(爭論)148 가소(可笑)149롭다
 잘났다 말을 하니 잘난 것은 무엇이며
 못난 것은 무엇이고 사람사람
 천지부모(天地父母) 혈기(血氣) 나눠 서로서로 화(化)해 날 제150
 사대오상(四大五常)151 갖춰오니 잘난 사람 더 갖추며
 못난 사람 덜 갖춰나 애달(愛怛)152다 너의 쟁론(爭論)153
 그런 시비(是非)154 그만해라 그는 또한 그러하나
 나라나라 말을 해서 나라로써 경쟁(競爭)하니
 그런 혼몽(昏夢)155 또 있는가 천지부모(天地父母) 포태(胞胎)156 중(中)에
 너와 나와 같이 살며 네 나라니 내 나라니
 서로서로 말을 하니 네 나라가 어디 있으며
 내 나라가 어디 있나 한 부모(父母)의 자손(子孫)되어
 네 것 내 것 경쟁(競爭)하니 그런 혼몽(昏夢) 또 있는가
 어서어서 혼몽(昏夢)157 깨소 그는 또한 그러하나
 어리석은 저 사람들 내 땅이니 네 땅이니
 땅을 두고 쟁론(爭論)158하니 그도 또한 혼몽(昏夢)이다
 자내(子乃)159몸 화(化)해 날 제160 땅이라 이름하고
 지고 왔나 이고 왔나 패물(佩物)161이라 차고 왔나
 수건(手巾)이라 쥐고 왔나 애달(愛怛)162하다 애달(愛怛)하다
 너의 사람 애달(愛怛)하다 자고(自古)163 성인(聖人) 전(傳)한 말씀

건부곤모(乾父坤母)164 일렀으니 땅 임자(任者) 알겠다마는
 어찌 그리 매몰(埋沒)165한고 어서 생각 깨우쳐라
 천지시판(天地始判) 마련(磨鍊) 후(後)에166 자고(自古) 제왕(帝王) 이어 나서
 나라나라 다뤘으되 지금(至今)까지 전(傳)해오이
 원亨利정(元亨利貞)167 천국(天國)이지 제왕(帝王)의 나라 어디 있으며
 내 땅 네 땅 말을 하나 사람 땅이 어디 있나
 그런 이치(理致) 모르고서 부질없이 허욕(虛慾)168내어
 천성(天性)을 해(害)치지 마소 무지(無知)한 저 사람들
 일일시시(日日時時)169 하는 거동(舉動) 천성(天性)을 전(專)혀170 잃고
 막지소향(莫知所向)171 행(行)하다가 저 죽는줄 저 모르네
 어화(御化)172 세상(世上) 사람들아 다시 생각(生覺) 가져라
 나 높으니 너 높으니 지식(知識) 줄니 용맹(勇猛) 줄니
 서로서로 말을 하니 지식(知識)이 무엇이며
 용맹(勇猛)이 무엇이며 높은 것이 무엇인고
 나는 도시(都是)173 모르겠다 지식(知識)을 말한대도
 남의 부모(父母) 자손(子孫)되어 지성지극(至誠至極)174 효행(孝行)해서
 자손도리(子孫道理) 극진(極盡)175히 하여 그것이 또한 지식(知識)이요
 용맹(勇猛)으로 말한대도 부모형제(父母兄弟) 이치(理致) 알고
 그른 일을 저버리고 옳은 일을 숭상(崇尚)176해서
 쉬지 말고 일일시행(一一施行)177 하는 것이 용맹(勇猛)이요
 높을 존(尊) 자(字) 일컬어서 높은 걸로 말할진대
 한 부모(父母)의 자손(子孫)으로 다른 도리(道理) 바이없네178
 부모(父母) 섬겨 높아지네 사람사람 하느님 전(前)
 봉사손(奉祀孫)179은 다 되지만 그 중(中)에 성현군자(聖賢君子)
 그 이치(理致)를 먼저 알고 깨달아서 봉사상제(奉祀上帝)180
 효행(孝行)할 제 경천순천(敬天順天)181 하여내어 계천립극(繼天立極)182
 하는 법(法)을 자고(自古)183 유래(由來)184 많은 사람 사람마다
 스승삼아 일일상고(一一詳考)185 효칙(效則)186해서 부모은공(父母恩功)
 갹자하고 일일습도(一一習道)187 그 가운데 성인성인(聖人聖人)
 이어 나서 대지달효(大知達孝)188 지켜두고 계천립극(繼天立極)189
 행(行)하면서 먼저 성인(聖人) 추존(推尊)190하여 스승이라
 이름하고 부모(父母)같이 섬기나니 이를 좇아
 생각(生覺)하니 많고 많은 사람 중(中)에 높은 사람
 말할진대 성인(聖人) 외(外)에 다시 없네 이런 이치(理致)
 모르고서 자내(子乃)191사람 무엇으로 높다하노
 나는 도시(都是)192 모르겠다 너의 소견(所見)193 불작시면
 불상(不祥)194코 가련(可憐)195하다 자고급금(自古及今)196 제왕지도(帝王之道)197
 높다한들 어느 후생(後生)198 효칙(效則)199하여 스승스승

삼아두고 부모(父母)같이 섬기든가 나는 도시(都是)200
 모르겠네 만승천자(萬乘天子)201 부귀(富貴)로써 높다한들
 부귀(富貴)로써 스승될까 부귀(富貴)로는 남의 스승
 못 되나니 여간(如干)202 부귀(富貴) 있더라도 무도(無道)203해서
 남의 스승 못 되면 무엇을 보고 높다할까
 이러므로 하갈상주(夏桀商紂)204 천자(天子)라고 이름하되
 필부(匹夫)205에다 비(比)하였고206 만승천자(萬乘天子)진시황(秦始皇)207
 위엄(威嚴)208줄다 자랑하며 자칭(自稱)209 높다 일컫되
 세상(世上)사람 이르기를 포악무도(暴惡無道)210 하다하고
 지금(至今)까지 전(傳)해오니 천자(天子)라고 높였는가
 음양조화(陰陽造化) 가는 질211이 이와 같이 명명(明明)212키로
 삼황오제(三皇五帝)213 성현(聖賢)214들도 존비귀천(尊卑貴賤)215 쟁론(爭論)216 않고
 부모(父母) 섬겨 도덕(道德) 닦아 경천순천(敬天順天)217 하신 바이니
 이를 좇아 깨달아서 사람사람 많은 사람
 사람마다 고금성인(古今聖人)218 효칙(效則)219하여 효도(孝道)로써
 개명(開明)하고 효도(孝道)로써 공산(共産)해서 도덕군자(道德君子)220
 되어보세 이내(台乃)221 말 헛말인가 천개어자(天開於子)222
 먼저 하고 지벽어축(地闢於丑)223 지차(支次)224하여 인간행도(人間行道)225
 하신 법(法) 자고사적(自古事蹟)226 역력(歷歷)히227 다 살피지
 못하고서 대강대강(大綱大綱)228 기록(記錄)하여 대강대강(大綱大綱)
 말을 하니 대강대강(大綱大綱) 살펴내어 대강(大綱) 이치(理致)
 자내(子乃)229 뜻에 방불(彷彿)하거든230 아니 잊고 시행(施行)231할까
 자세(仔細)히 생각(生覺) 들어보소 천지시판(天地始判) 마련(磨鍊) 후(後)에232
 하느님 조화(造化)233로서 인간만물(人間萬物) 제조(製造)할 제
 사람사람 많은 사람 일기(一氣) 중(中)에234 화(化)해 나서235
 서로서로 남과 같이 자라더니
 하느님 어진 부모(父母) 사시성쇠(四時盛衰)236 정(定)해두고
 춘추질대(春秋迭代)237 마련(磨鍊)238해서 불천불역(不遷不易)239 가는 뜻을
 허다(許多)240 자손(子孫) 교육(教育) 차(次) 때를 따라 용마하도(龍馬河圖)241
 출송(出送)242하니 어느 누가 용마하도(龍馬河圖) 그림 보고
 순환지리(循環之理)243 깨달을까 많고 많은 그 사람이
 하늘 자손(子孫) 다 되지만 초야인민(草野人民)244 되어나서
 심공(心工)245 없는 그 소견(所見)에 사람마다 하도(河圖)246 보고
 하늘 부모(父母) 지극(至極)한 뜻 얼른 얼른 다 알겠는가
 다 알지 못한 바를 그 중(中)에 복희씨(伏羲氏)247라
 하는 양반(兩班) 하도이치(河圖理致)248 아시고 하늘 부모(父母)
 뜻을 받아 효도(孝道)로써 경천순천(敬天順天)249 하신 고(故)로250
 목덕이왕(木德以王)251 하신 법(法)을 지금(至今)까지 전(傳)해오되

성인성자(聖人聖字)252 높아 있네 그 근원(根源)을 인연(因緣)253하여
 차차차차(次次次次)254 천리(天理)255따라 이치(理致) 미루어 성인성인(聖人聖人)
 이어나니 선성(先聖)256 이어 후성(後聖)257일세 후성(後聖)이라
 하는 양반(兩班) 누구신가 신농씨(神農氏)258가 그 아닌가
 신농씨(神農氏)라 하는 양반(兩班) 천지우로(天地雨露)259 조화(造化)260 중(中)에
 남과 같이 탄생(誕生)해서 그러그러 자라더니
 지극(至極)한 하느님 전(前) 춘생하장(春生夏長) 추수동장(秋收冬藏)261
 이치(理致) 미루어 깨닫고서 농사법(農事法)을 마련(磨鍊)262하여
 이교후생(以教後生)263 전(傳)해 주고 백초(百草)264를 맛을 보고
 의약(醫藥)을 마련(磨鍊)해서 박시제중(博施濟衆)265 하여 내어
 경천순천(敬天順天)266 하신 고(故)로267 지금(至今)까지 전(傳)해오되
 신농씨(神農氏)268라 이름하고 성인성자(聖人聖字)269 대(代)를 바쳐
 서로서로 높은 도덕(道德) 효칙(效則)270하네 그는 또한
 그러하나 현원씨(軒轅氏)271라 하는 양반(兩班) 사람사람
 섞여 나서 이치(理致) 따라 장양(長養)272하더니 천성지품(天性之稟)273
 수련(修鍊)274하다가 하도(河圖)275 보고 천리(天理)276 따라 이치(理致) 알고
 송구영신(送舊迎新)277 하자하고 제작주거(制作舟車)278 하여 내어
 이제불통(以濟不通)279 하시고 역산(曆筭)280을 밝혀내어
 절후(節候)281 좇아 이치(理致) 정(定)하고 역천(逆天)282하는 무도자(無道者)283를
 일일징치(一一懲治)284 하시고 순천(順天)285하는 유덕군자(有德君子)286
 제제(濟濟)287히 건져 내어 경천순천(敬天順天)288 하신 고(故)로289
 현원씨(軒轅氏)290 높은 도덕(道德) 사람사람 찬송(讚頌)일세
 어화(御化)291 세상(世上) 사람들아 삼황성덕(三皇聖德)292 그러하나
 오제지덕(五帝之德)293 구경하소 금천씨(金天氏)294와 고양씨(高陽氏)295와
 고신씨(高辛氏)296와 도당씨(陶唐氏)297와 유우씨(有虞氏)298를 말한대도
 많고 많은 사람 중(中)에 백성류(百姓類)299에 섞여 나서
 백성류(百姓類)에 섞여 크다 천성지품(天性之稟)300 굳게 지켜
 수련성심(修鍊誠心)301 공부(工夫)하다가 하도이치(河圖理致)302 천리순환(天理循環)303
 깨닫고서 차차차차(次次次次)304 때를 따라 시중(時中)305 시중(時中)
 시행(施行)306하기로 계천립극(繼天立極)307 자연(自然)히 되어 오제성덕(五帝聖德)308
 좋다 하고 사람사람 불망천추(不忘千秋)309 송덕(頌德)310일세
 그러하나 유우씨(有虞氏)311로 말하자면 역산(歷山)312의
 밭을 갈아 농업 자생313 하셨으니 초야(草野)314 농부
 그 아니며 하빈(河濱)315에서 독을 구워 독장사로
 생애(生涯)를 하셨으니 토기점(土器店)316의 독장사가
 그 아니며 뇌택(雷澤)317에 고기 잡아 생선(生鮮) 팔아
 생애(生涯)를 하셨으니 강호어부(江湖漁父) 그 아닌가
 그러그러318 지내다가 도당씨(陶唐氏)319 반갑게 만나

유정유일(惟精惟一)320 전수심법(傳授心法)321 받아다가 지성무식(至誠無息)322
 수련(修煉)하시어 용마하도(龍馬河圖)323 밝은 도덕(道德) 천성지품(天性之稟)324
 더 밝히어 대지달효(大知達孝)325 하실 때에 세상(世上) 사람
 귀위천자(貴爲天子) 부유사해(富有四海)326 일컫되 유우씨(有虞氏)
 어진 마음 귀위천자(貴爲天子)327 귀(貴)중히 알지 아니하시며
 부유사해(富有四海)328 부(富)로 알지 아니하시고 고은 아내
 아황(娥皇) 여영(女英)329 돌 있으되 고은 줄을 모르시고
 평생(平生) 소원(所願) 한(恨)하는 바 부모(父母) 뜻을 순(順)하게 받아330
 일일시행(一一施行)331 못다할까 경경불매(耿耿不寐)332 한(恨)한 고(故)로333
 요순지도(堯舜之道) 효제이이(孝悌而已)334라 지금(至今)까지 사람사람
 효칙(效則)335하여 일컫나니
 어화(御化)336 세상(世上) 사람들아 삼황오제(三皇五帝)337 높은 도덕(道德)
 이와 같이 높거니와 하은주(夏殷周) 삼대지덕(三代之德)338
 융성(隆盛)하여 후세막급(後世莫及)339 전(傳)해오되
 우탕문무(禹湯文武)340 말한대도 수명우천(受命于天)341 화(化)해 날 제342
 사대오상(四大五常)343 고루 갖춰 만인백성(萬人百姓)의 동류(同類)344로서
 남과 같이 화(化)해 나서345 남과 같이 자라다가
 하도이치(河圖理致)346 근원(根源) 미루어 천리(天理)347따라 시행(施行)할 제
 하우씨(夏禹氏)348라 하는 양반(兩班) 유우씨(有虞氏)349 반갑게 만나
 전수심법(傳授心法)350 받아다가 수련성심(修煉誠心)351 공부(工夫)하다가
 천성자연(天性自然)352 회복(回復)되어 순수천시(順隨天時)353 하려할 제
 요순교훈(堯舜教訓)354 다시 받아 구년홍수(九年洪水)355 때를 알고
 천명(天命)356 받아 치수(治水)357할 제 억조창생(億兆蒼生)358 건지려고
 호생지심(好生之心)359 버리360 삼고 주류사해(周流四海)361 두루 걸어
 삼과기문(三過其門)362 불입(不入)363하시어 경천순천(敬天順天)364 하신 고(故)로365
 명천(明天)366이 사랑하시어 때를 이어 일깨우실 제
 오행상생(五行相生)367 순수지리(順數之理)368 오정시(午丁時)369가 거의 한가370
 일음시생(一陰始生)371 때가 왔는가 오행상극(五行相克)372 역수지리(逆數之理)373
 구미낙서(龜尾洛書)374 출송(出送)375하니 많고 많은 사람 중(中)에
 하우씨(夏禹氏)376 어진 마음 낙서지리(洛書之理)377 살피신 후(後)
 후천지수(後天之數)378 깨닫고서 일일성출(一一成出)379 그려내어
 이교후생(以教後生)380 전(傳)해주고 천지부모(天地父母) 뜻을 받아
 일일시행(一一施行)381 하자하고 사람사람 교육(教育)할 제
 경외지심(敬畏之心)382 지켜두고 일궈십기(一饋十起)383 하여내어
 중생제도(衆生濟渡)384 하실 적에 인유과실(人有過失)385 말을 하면
 하차배알(下車拜謁)386 하셨으니 그런 성덕(聖德) 또 있는가
 하우씨덕(夏禹氏德)387 그러하나 성탕지덕(成湯之德)388 들어보소
 용마하도(龍馬河圖)389 순수지리(順數之理)390 구미낙서(龜尾洛書)391 역수지리(逆數之理)392

상응상조(相應相助)393 비(比)하여서394 오미신시(午未申時)395 당(當)했던가
 유월(六月) 장마 다 지나고 칠월(七月) 한재(旱災)396 당(當)했던가
 허다(許多)397 많은 사람 중(中)에 은왕성탕(殷王成湯)398 어진 마음
 천명(天命) 받아 때를 알고 하갈(夏桀)399의 무도(無道)400함을
 물리치고 칠년대한(七年大旱) 401 당(當)하신 후(後) 만물고갈(萬物枯渴)402
 거의 됨에 천시(天時)403따라 시행차(施行次)404로 도우상림(禱雨棠林)405
 비를 빌 제 때를 맞춰 본형(本形)으로 제수(祭需)406 바쳐
 감응지리(感應之理)407 빌어낼 제 전조단발(剪爪斷髮)408 신영백모(身嬰白茅)409
 고루 갖춰 지성감천(至誠感天)410 발원(發願)411하니 천신(天神)이
 감응(感應)하시어 대우방수천리(大雨方數千里)412를 잠시간(暫時間)413에 베풀어서
 만물고갈(萬物枯渴) 면(免)하게 하니
 이런 일로 볼 것 같으면 천덕(天德)414 이어 성인지덕(聖人之德)415
 그 아닌가 은왕성탕(殷王成湯)416 높은 도덕(道德) 그러하나
 어화(御化) 세상(世上) 사람들아 또 다시 생각(生覺)하여
 문무지덕(文武之德)417 들어보소 서후백(西侯伯)418 주문왕(周文王)419이
 복희씨(伏羲氏)420 선천팔괘(先天八卦)421 오행상생(五行相生)422 순수지리(順數之理)423
 건도성남(乾道成男)424 삼십이괘(三十二卦)425 정(定)하시고 하우씨(夏禹氏)426
 후천팔괘(後天八卦)427 오행상극(五行相克)428 역수지리(逆數之理)429 곤도성녀(坤道成女)430
 삼십이괘(三十二卦) 정(定)하신 후(後) 건곤지도(乾坤之道)431 합(合)하여서
 육십사괘(六十四卦)432 정(定)해 놓고 삼백팔십사효(三百八十四爻)433 붙여
 천지지도(天地之道)434 순환지리(循環之理)435 사람마다 알게 하시어
 일일교육(一一教育) 힘쓰시니 문왕성덕(文王聖德)436 지중(至重)437하다
 문왕(文王)의 덕(德) 그러하나 무왕(武王)438의 덕(德) 구경하소
 천명소시(天命所施)439 때를 알고 불실시중(不失時中)440 시행(施行)441할 제
 불기회자(不期會者) 팔백여국(八百餘國) 거느리고442 일착용의(一着戎衣)443
 갖추시고 태공병법(太公兵法)444 앞세워 일로이안(一怒以安)
 천하지민(天下之民)445 하실 때에 오미신시(午未申時)446 칠월(七月)운(運)이
 다 진(盡)하고447 새로 유시(酉時)448 팔월(八月) 운(運)이 왕(旺)하던가449
 포악무도(暴惡無道)450 저 상주(商紂)451를 천명(天命)452 받아 물리치고
 억조창생(億兆蒼生)453 제도(濟渡)454하니 경천순천(敬天順天)455 분명(分明)하니
 그 일 저 일 두루 살펴 대강대강(大綱大綱)456 말하자니
 요순지세(堯舜之世)457 고기직설(皐囊稷契)458 그 선생(先生)과 우탕지세(禹湯之世)459
 이윤전설(伊尹傳說)460 그 선생(先生)과 문무지세(文武之世)461 주공소공(周公召公)462
 기자미자(箕子微子)463 그 선생(先生)들 만인백성(萬人百姓) 같이 나서
 모양(貌樣)으로 말하자면 남다른바 없지마는
 인간오욕(人間汚慾)464 저버리고 성심수련(誠心修煉)465 공부(工夫) 힘써
 하늘 부모(父母) 뜻을 알고 효행(孝行)의 마음 굳게 지켜
 요순우탕(堯舜禹湯) 문무지덕(文武之德)466 지극히 도와 하늘 마음

편하게 하고 수다창생(數多蒼生)467 교육(敎育)하여 경천순천(敬天順天)468
 하게하니 성인(聖人) 스승 그 아니며 노(魯)나라469
 공부자(孔夫子)470로 말한대도 초야(草野)471에 자라날 때
 탄생(誕生) 후(後) 삼세(三歲)되어 혈육부친(血肉父親) 조실(早失)하고472
 모친(母親)에게 의탁(依託)473하여 그러그러 자라나니
 빈천자(貧賤者)474가 그 아닌가 빈천(貧賤)한 그 몸으로
 주역(周易)475이라 하는 서책(書冊) 지성무식(至誠無息)476 공부(工夫)하다
 위편삼절(韋編三絶)477 하신 후(後)에 건곤지도(乾坤之道)478 정(定)한 이치(理致)
 육십사괘(六十四卦)479 그 가운데 삼백팔십사효(三百八十四爻)480 붙여
 순환지리(循環之理)481 이치(理致) 알고 조술요순(祖述堯舜)482 하시며
 문무지덕(文武之德)483 찬(讚)하시고484 계왕성개래학(繼往聖開來學)485 하신 고(故)로486
 후생(後生)487이 이르기를 공부자지성덕(孔夫子之聖德)이
 반유현어요순(反有賢於堯舜)이라488 일렀으되 용마하도(龍馬河圖)489
 선천지수(先天之數)490 석양운(夕陽運)491을 받아 나서 이치(理致)로써
 철환천하(轍環天下)492 하시되 부득기위(不得其位)493 하였고
 슬하제자(膝下弟子) 삼천지도(三千之徒)494 초야인민(草野人民)495 되어나서
 인고(困苦)496하기 짝이 없으되 부자교훈(夫子敎訓)497 받아내어
 일일시시(日日時時)498 습도(習道)499하다 칠십이인(七十二人)500 도통(道通)501해서
 천지도수(天地度數)502 영허지리(盈虛之理)503 밝은 도덕(道德) 더 밝히어
 인사소위(人事所爲)504 나타내어서 이교후생(以敎後生)505 전(傳)했으니
 그 아니 성덕(聖德)이며 자사맹자(子思孟子)506 그 때 시운(時運)507
 이어나서 조실부모(早失父母)508 하신 몸이 천지부모(天地父母)
 은덕(恩德)으로 그러그러 자라날 제 수명우천(受命于天)509
 받은 품성(稟性)510 일일습도(一一習道)511 힘쓰다가 천은지덕(天恩地德)512
 깨닫고서 자고(自古)513 성인(聖德) 이어내어 사람사람
 전(傳)하여서 지금(至今)까지 유전(遺傳)514하니 스승스승
 아니신가
 어화(御化)515 세상(世上) 많은 사람 자세(仔細)히 보고 요탁(料度)516하소
 어리석은 이내(台乃)517 사람 이 일 저 일 살피다가
 삼재오행(三才五行)518 화(和)한 몸이519 자고역대(自古歷代)520 살펴보니
 다른 도리(道理) 전혀 없네 통고금(通古今)521 넓은 천하(天地)
 많고많은 세상(世上) 사람 천지부모(天地父母) 혈기(血氣) 받아
 너도 나고 나도 나서 부모은덕(父母恩德) 갚자하고
 출세인간(出世人間)522 한 몸이 높은 사람 따로 없고
 낮은 사람 따로 없네 천지부모(天地父母) 뜻을 받아
 지성지극(至誠至極)523 효(孝)한 사람 사람마다 계천립극(繼天立極)524
 성인(聖人)되어 사람 중(中)에 높아 있고 천지부모(天地父母)
 뜻 모르고 자행자지(自行自止)525 날로 하여 불순도덕(不順道德)526

하던 사람 사람마다 천(賤)하였네
 애달(愛怛)527하다 애달(愛怛)하다 세상(世上)사람 애달(愛怛)하다
 이런 이치(理致) 알았으면 천은지덕(天恩地德)528 깨달아서
 자자위선(孜孜爲善)529 하려마는 그리할 줄 모르고서
 자자위리(孜孜爲利)530 힘쓰다가 사람사람 천(賤)해지니
 그 아니 애달(愛怛)531한가 어떤 이는 성인(聖人)되어
 만세무강(萬世無疆)532 전(傳)해 있고 어떤 이는 범부(凡夫)533되어
 출세흔적(出世痕迹)534 전혀 없네 이를 좇아 생각해서
 금금업업(兢兢業業)535 닦아라 사람의 하는 도리(道理)
 부모(父母)섬겨 효행(孝行)밖에 다시없고 동기연지(同氣連枝)536
 상구지도(相救之道)537 우애(友愛)밖에 할 것이 없네 고금이치(古今理致)538
 일반(一般)이니539 어서 배워 효행(孝行)하고 어서 배워
 우애(友愛)하소 천지도수(天地度數)540 영허지리(盈虛之理)541 안 배우면
 모르나니 힘써 배워 행(行)해볼까
 그는 또한 그러하나 건곤지도(乾坤之道)542 수질(數迭)543하니
 양선음선(陽旋陰旋)544 양사(兩事)545 중(中)에 상생지리(相生之理)546 선천지수(先天之數)547
 은복(隱伏)548인가 상극지리(相克之理)549 후천지수(後天之數)550 흥왕(興旺)551신가
 많고 많은 사람 중(中)에 석가여래(釋迦如來) 부처님이
 하느님 뜻 먼저 알고 순수천명(順受天命)552 하자하고
 제석천궁(帝釋天宮)553 하느님을 일심(一心)으로 모시고서
 은거산림(隱居山林)554 하시면서 지성지극(至誠至極)555 효행(孝行)하여
 극락세계(極樂世界) 되었지만 애달(愛怛)556한 세상(世上) 사람
 그런 운수(運數)모르고서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557 이후(以後)
 구미낙서(龜尾洛書)558 역수지행(逆數之行)559 상극지리(相克之理) 이끌리어
 사해팔방(四海八方)560 넓은 땅에 사람사람 기국(器局)561대로
 동요(搖動)562할 제 그 거동(舉動) 가관(可觀)일세
 백천만방(百千萬邦)563 늘어앉아 구역구역 차지하고
 나라나라 이름하며 경쟁기국(競爭器局)564 날로 하니
 전장불식(戰場不熄)565 그 아닌가 애달(愛怛)566하다 너희 사람
 어찌 그리 매몰(埋沒)567하고 일일시시(日日時時)568 하는 말이
 영웅(英雄)569이니 지식(知識)이니 조화(造化)570니 재조(才調)571니
 명장(名將)이니 능력(能力)이니 말을 해서 대원수(大元帥)572니
 부원수(副元帥)573니 대장(大將)574이니 중군(中軍)575이니 선봉(先鋒)576이니
 후봉(後鋒)577이니 말을 하고 병졸(兵卒)578이니 사졸(士卒)579이니
 서로서로 취당(聚黨)580하여 공투쟁국(攻鬪爭局)581 일삼으나
 인간만사(人間萬事) 되는 바가 인력(人力)582으로 아니 되고
 천리(天理)583로써 되는 것이니 너의 용맹(勇猛) 믿지 마라
 동두철액(銅頭鐵額)584 그 강(強)함도 쓸 곳이 전혀 없고

항장(項莊)585의 날랜 칼도 던질 곳이 없었거든
하물며 이 세상(世上)에 허다(許多)586 사람 사람의 용맹(勇猛)
쓸데 있나 자세(仔細)히 듣고 생각(生覺)하소
조화조화(造化造化) 말을 해도 하느님 조화(造化)587로써
인간만물(人間萬物) 제조(製造)하고 지식지식(知識知識) 말을 하나
하느님 지식(知識)으로 사시성쇠(四時盛衰)588 때를 알고
불식순환(不息循環)589 행(行)해가고 능력능력(能力能力) 말을 하나
하느님 능력(能力)으로 송구영신(送舊迎新)590 위기(違其)않고591
행(行)하나니 영념불망(念念不忘)592 깨달으소
사람사람 많은 사람 제왕지도(帝王之道)593 좋다하나
좋다하는 제왕지도(帝王之道) 하느님이 때를 따라
임의용지(任意用之)594 하는 바이니 자내(子乃)595 용맹(勇猛) 믿지 말고
자내(子乃)596 수단(手段)597 자랑마소 수단(手段) 용맹(勇猛) 자랑하다가
득죄어천(得罪於天)598 하게 되면 이리벌지(以理罰之)599 당(當)할 것이요
득죄어인(得罪於人)600 하게 되면 이형치지(以刑治之)601 당(當)할 테니
부디부디 생각(生覺)해서 수심수덕(修心修德)602 극(極)히603 하여
경천순천(敬天順天)604 하여보세 시방시절(是方時節)605 말하자면
선천후천(先天後天)606 운(運)이 역시(亦是) 다 끝나고 도로 선천(先天)
회복(回復)되어 목덕이왕(木德以旺)607 때 왔으니 때를 알고
수도(修道)하여608 사람사람 많은 사람 사람마다
계천립극(繼天立極)609 하여내어 도덕군자(道德君子) 되어보세
이내(台乃)610 말 헛말인가 자세(仔細)히 생각(生覺)하여 비(比)해 보소611
삼황오제(三皇五帝)612 말한대도 천지부모(天地父母) 뜻을 이어
지성지효(至誠至孝)613 극(極)히614 하시어 경천순천(敬天順天)615 하신 도덕(道德)
그 도덕(道德)이 남아있어 사람사람 효칙(效則)616해서
지금(至今)까지 전(傳)해오지 제왕(帝王)이라 높다하며
부(富)하다고 귀(貴)하다 했나 옛날을 좇아 사람 도리(道理)
천지부모(天地父母) 지은지덕(至恩至德)617 만분지일(萬分之一) 값자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618 공경(恭敬)해서 대지달효(大知達孝)619 높아있지
다른 도리(道理) 전혀 없네 귀(貴)하다 말을 하며
부(富)하다 일컬으되 춘추지개락(春秋之開落)620으로
순수천리(順隨天理)621 일거후(一去後)에622 남은 부귀(富貴) 어디 있나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623 사람마다 그 뿐일세
존비귀천(尊卑貴賤)624 말을 하나 존귀(尊貴)가 무엇이며
비천(卑賤)이 무엇인고 일생일사(一生一死)625 다 같은데
효불효(孝不孝)를 일컬어서 귀천지수(貴賤之殊) 정(定)했나니626
그러므로 삼대지덕(三代之德)627 융성(隆盛)하사 후세막급(後世莫及)628
전(傳)했으되 경천지례(敬天之禮)629 그 뿐일세

애달(愛怛)630하다 세상(世上)사람 무엇으로써 쟁론(爭論)631하노
 다시 생각(生覺)들어보소 도당씨(陶唐氏)632어진 마음
 천하만민(天下萬民)위(爲)하여서 어진 사람 구(求)하실 제
 소부허유(巢父許由)633 찾아가서 천하(天下)를 전(傳)해주되
 인간부귀(人間富貴) 뜻이 없어 받지 않고 사양(辭讓)하기로
 그 도덕(道德)을 청절(淸絶)634하다 일컬어서 지금(至今)까지
 전(傳)해오고
 요순지세(堯舜之世)635 고기직설(皐夔稷契)636과 하우상탕지세(夏禹商湯之世)637 이윤전설(伊尹傳
 說)638과
 문무지세(文武之世)639 주공소공(周公召公)640과 주쇠지세(周衰之世)641 공안증(孔顔曾)642
 자사맹자(子思孟子)643 열위성인(列位聖人)644 하신 역사(歷史) 역력(歷歷)645히
 보더라도 제왕지위(帝王之位) 거(居)하시지646 아니 하시되
 천성지품(天性之稟)647 수련(修煉)648하시어 계천립극(繼天立極)649 도(道)를 닦아
 체천행도(體天行道)650 하실 적에 계왕성개래학(繼往聖開來學)651 하여내어
 나는 후생(後生) 가르쳐서 사람사람 덕(德)이 되게
 하시니 은대덕중(恩大德重)652 태산(泰山)이라
 이런 이치(理致) 모르고서 어리석은 저 사람들
 각언각지(各言各知)653 쟁론(爭論)654하다가 인간오욕(人間汚慾)655 침혹(沉惑)656되어
 공로세월(空老歲月)657 무슨 일이며 일편수심(一片修心)658 전혀 없이
 난법난도(亂法亂道)659 행(行)하다가 자기가 죽는 줄 자신이 모르니
 그 아니 가련(可憐)한가660 자고금금(自古及今)661 세상이치(世上理致)
 그러하니 사람마다 안심정기(安心正氣)662 수신(修身)663해서
 순수천리(順隨天理)664 가도록 하자 순수천리(順隨天理) 가게 되면
 내성군자(乃成君子)665 다 될테니 그리 알고 시행(施行)할가
 용담유사지제이십구(龍潭遺辭之第二十九) 개명공산가(開明共産歌) 권일종(卷一終)666

[각주]

- 1) 어화(御化) : 가사(歌辭)에서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듣는 이로 하여금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을 떼는 역할을 하는 발어사(發語詞).
- 2) 천견박식(淺見薄識) : 얕은 견문과 좁은 지식.
- 3) 이내(台乃) : ‘나’ 혹은 ‘나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4) 불연기연(不然其然) : 천도교(동학)에서 그럴지 아니하다고 하면 그것은 그럴다는 뜻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곧 긍정하는 것임을 이르는 말.
- 5) 부야흥야(賦也興也) : 『시경(詩經)』의 육의(戮義) 중 하나인 부(賦)와 흥(興)을 지칭함. 부(賦)는 읊으려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직서법(直敘法)이고, 흥(興)은 읊으려는 것을 연상시키는 사물을 먼저 끌어들여 표현하는 방식임.
- 6) 비(比)하여서 : 비교하거나 견주어서.
- 7) 요탁(料度) : 예상함. 미루어 헤아림.
- 8) 수명우천(受命于天) : 하늘의 명을 받음.
- 9) 운수청림(運數靑林) : 하늘이 내린 무성한 숲.
- 10) 경(景) : 경치.
- 11) 무궁락(無窮樂) : 끝이 없는 즐거움.
- 12) 무궁무궁(無窮无窮) : 끝이 없음. 무(无)는 무(无)의 이체자임.
- 13) 한량(限量)없는 : 한정된 분량.
- 14) 지은지덕(至恩至德) : 지극한 은혜와 지극한 덕(德).
- 15) 무궁무궁(無窮无窮) : 끝이 없음. 무(无)는 무(无)의 이체자임.
- 16) 이치리자(理致理字) : 이치(理致)의 뜻을 가진 ‘리(理)’라는 글자. 이치(理致)란 자연과 사물(事物)의 정당한 조리(條理) 또는, 그 도리(道理)에 맞는 취지(趣旨)를 의미함.
- 17) 요탁(料度) : 예상함. 미루어 헤아림.
- 18) 일일상고(一一詳考) : 매일 매일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
- 19) 비(比)해 보소 : 비교하거나 견주어 보소.
- 20) 제조(製造) : 만듦.
- 21) 불식순환(不息循環) : 쉬지 않고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 이어 둠.
- 22) 조화(造化) : 만물(萬物)을 낳고 자라고 죽게 하는, 영원(永遠) 무궁(無窮)한 자연의 이치.
- 23) 허다만물(許多萬物) : 수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 24) 기리기연(其理其然) :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이치.
- 25) 효경이자(孝敬二字) : ‘효경(孝敬)’ 두 글자. ‘효경(孝敬)’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한다는 뜻임.
- 26) 삼십삼천(三十三天) : ‘도리천(忉利天)’을 달리 이르는 말. ‘도리천’은 제석천(帝釋天)이 다스리는 천계(天界)로,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다고 하며, 가운데에 제석천이 사는 선견성(善見城)이 있고, 그 사방에 하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 8개씩의 성이 있음.
- 27) 화생만물(化生萬物) : 만물(萬物)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것.
- 28) 진장남(震長男), 손장녀(巽長女) : 태극이 음양을 생성하는 모습을 나타낸 ‘복희팔괘도’에 나오는 것으로, 이 ‘복희팔괘도’에서는 ‘진장남(震長男)’과 ‘손장녀(巽長女)’가 서로 짝을 이루어 음과 양이 정확하게 결합함으로써 만물을 창조하고 생성하는 모습을 담고 있음.

- 29) 장남장녀(長男長女) : ‘진장남(震長男)’과 ‘손장녀(巽長女)’를 지칭함.
- 30) 부부지도(夫婦之道) : 부부(夫婦)의 도리.
- 31) 오행수기(五行秀氣) : ‘오행(五行)’의 빼어난 기운. 오행(五行)은 우주(宇宙) 사이를 쉬지 않고 운행(運行)하는 다섯 가지 원소인 ‘쇠(金)·나무(木)·물(水)·불(火)·흙(土)’을 의미함.
- 32) 봉사상제(奉祀上帝) : 상제(上帝) 즉, 하느님께 제사를 올림.
- 33) 제차(第次) : 차례(次例).
- 34) 고루 : 차이가 없이 같게, 두루 빼놓지 않고.
- 35) 기리기연(其理其然) :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이치.
- 36) 적실(的實) : 틀림없이 확실함.
- 37) 천생만민도우생(天生萬民道又生) : 하늘이 만민(萬民)을 만드시고, 또 도를 만듦.
- 38) 차서지별(次序之別) : 차례, 순서를 나눔.
- 39) 호호망망(浩浩茫茫) : 끝없이 넓고 멀어서 아득함.
- 40) 봉사손(奉祀孫) : 제사를 받드는 자손.
- 41) 전(前) : ‘앞’의 높임말.
- 42) 효제(孝悌) : 부모(父母)에 대한 효도(孝道)와 형제(兄弟) 간의 우애(友愛).
- 43) 지성무식(至誠無息) : 온갖 정성을 다하여 쉬지 아니함.
- 44) 의아지심(疑訝之心) : 의심하는 마음.
- 45) 일일시행(一一施行) : 매일 매일 실제로 행함.
- 46) 고언(古言) : 옛말. 여기에서는 『동몽선습(童蒙先習)』 중 “天地之間萬物之中에 惟人이 最貴하니 所貴乎人者는 以其有五倫也라.(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五倫(오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을 가리킴.
- 47) 유인(惟人)이 : 오직 사람이.
- 48) 최귀자(最貴者) : 가장 귀한 것.
- 49) 이치리자(理致理字) : 이치(理致)의 뜻을 가진 ‘리(理)’라는 글자. 이치(理致)란 자연과 사물(事物)의 정당한 조리(條理) 또는, 그 도리(道理)에 맞는 취지(趣旨)를 의미함.
- 50) 자고(自古) : 예로부터.
- 51) 최귀지인(最貴之人) : 가장 귀한 존재인 사람.
- 52) 장남장녀(長男長女) : ‘진장남(震長男)’과 ‘손장녀(巽長女)’를 지칭함.
- 53) 애자지심(愛慈之心) : 사랑하는 마음.
- 54) 지은지덕(至恩至德) : 지극한 은혜와 지극한 덕.
- 55) 효제지도(孝悌之道) :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友愛)있게 지내는 도리.
- 56) 학불염(學不厭) : 배움을 싫어하지 아니함.
- 57) 위주(爲主) : 으뜸으로 삼음.
- 58) 교불권(教不倦) : 가르침을 게을리 아니함.
- 59)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 60) 효행지도(孝行之道) : 효를 행하는 방법.
- 61) 삼강오륜(三綱五倫) : 유교에서 도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다섯 가지의 인륜(人倫).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이고, ‘오륜’은 부자유친(父子有

親) · 군신유의(君臣有義) · 부부유별(夫婦有別) · 장유유서(長幼有序) · 붕우유신(朋友有信)임.

62) 인의예지(仁義禮智) :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성품. 곧 어짊과 의로움과 예의와 지혜로움.

63) 사단(四端) : 『맹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를 뜻함. 즉 인(仁)에서 우러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의(義)에서 우러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에서 우러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지(知)에서 우러나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가리킴.

64) 미뤄 : 이미 알려진 것으로써 다른 것을 비추어 헤아림.

65) 예의염치(禮義廉恥) : 예절(禮節)과 의리(義理)와 청렴(清廉)한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태도(態度).

66) 원형리정(元亨利貞) :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자라고 삶을 이룬 뒤 완성하게 되는 근본 원리. ‘원(元)’은 봄으로 만물의 시초인 인(仁)이 되고, ‘형(亨)’은 여름으로 만물이 자라 예(禮)가 되고, ‘리(利)’는 가을로 만물이 이루어져 의(義)가 되고, ‘정(貞)’은 겨울로 만물을 거두어 지(智)가 됨.

67) 내외(內外) : 남자와 여자, 또는 남녀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 아내와 남편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

68) 부화부순(夫和婦順) : 부부 사이가 화목함.

69) 동기연지(同氣連枝) : 형제는 부모의 기운(氣運)을 같이 받았으니 한 나무의 가지와 같음.

70) 마련(磨鍊) : 헤아려서 갖춤, 혹은 일이나 물건을 마름질하여 계획을 세움.

71) 노소관동(老少冠童) : 노소(老少)는 늙은이와 젊은이를 같이 일컫는 말이고, 관동(冠童)은 관례(冠禮)를 한 사람과 관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남자 어른과 남자 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72) 제차(第次)미뤄 : 차례에 비추어 헤아려.

73) 장유유서(長幼有序) : 오륜(五倫)의 하나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뜻함.

74) 경장지도(敬長之道) :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

75) 붕우유신(朋友有信) : 오륜의 하나로,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뜻함.

76) 책선지도(責善之道) : 친구 사이에는 선(善)을 권장하는 것이 도리라는 의미.

77) 효유(曉諭) : 깨우쳐 일러줌.

78) 학이시습(學而時習) : 배우고 때로 익힌다는 뜻으로, 『논어』의 첫머리에 있는 구절임.

79) 명명기덕(明明其德) : 큰 덕을 밝히는 일.

80) 남녀유별(男女有別) :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함.

81) 효경이자(孝敬二字) : ‘효경(孝敬)’ 두 글자. ‘효경(孝敬)’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한다는 뜻임.

82) 버리 :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 또는 밑바탕.

83) 호생지심(好生之心) : 남을 잘 되게 하려는 착한 마음.

84) 일일상고(一一詳考) : 매일 매일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

85) 천리절문(天理節文) : 하늘의 이치에 관한 규범이나 질서. 중국 남송(南宋)의 유학자 주희(朱熹)는 ‘예(禮)’를 천리(天理)의 절문(節文)이라고 함.

86) 인륜지도(人倫之道) :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87) 지중(至重) : 더할 수 없이 중요함.

88) 효제지도(孝悌之道) :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友愛)있게 지내는 도리.

89) 고(故)로 : 까닭에.

90) 계천립극(繼天立極) : 하늘의 뜻을 이어 법도를 세움.

- 91) 전지우전(傳之又傳) : 그것을 전(傳)하고 또 전함.
- 92) 개명이자(開明二字) : 개명(開明) 두 글자.
- 93) 개명(開明) : 지혜가 열리고 문화가 발달함.
- 94) 도시(都是) : 도무지, 전혀.
- 95) 자손직분(子孫職分) : 자손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부분.
- 96) 인사도리(人事道理) :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97) 지중(至重) : 더할 수 없이 중요함.
- 98) 지성지극(至誠至極) : 지극한 정성으로 더없이 극진함.
- 99) 개명(開明) : 지혜가 열리고 문화가 발달함.
- 100) 삼재(三才) : 우주의 세 가지 근원을 뜻하는 말로, 하늘(天)과 땅(地), 사람(人)을 가리킴.
- 101) 부자인륜(父子人倫) : 부모와 자식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102) 효제(孝悌) : 부모(父母)에 대한 효도(孝道)와 형제(兄弟) 간의 우애(友愛).
- 103) 부귀빈천(富貴貧賤)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과 가난하고 천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04) 개명이치(開明理致) : 개명(開明)하게 만드는 이치. <개명공산가>에서는 효제(孝悌)를 개명의 이치로 보고 있음.
- 105) 지성지효(至誠至孝) : 지극한 정성으로 효를 다함.
- 106) 극(極)히 : 극진히.
- 107) 동기연지(同氣連枝) : 형제는 부모의 기운(氣運)을 같이 받았으니 한 나무의 가지와 같음.
- 108) 사해팔방(四海八方) : 온 세상.
- 109) 효유(曉諭) : 깨우쳐 알려줌.
- 110) 효자효부(孝子孝婦) : 아버이를 잘 섬기는 아들과 며느리.
- 111) 개명이치(開明理致) : 개명(開明)하게 만드는 이치. <개명공산가>에서는 효제(孝悌)를 개명의 이치로 보고 있음.
- 112) 개명시기(開明時期) : 개명(開明)을 할 적당한 때나 기회.
- 113) 실시(失時) : 때, 시기를 노침.
- 114) 효제(孝悌) : 부모(父母)에 대한 효도(孝道)와 형제(兄弟) 간의 우애(友愛).
- 115) 낙당당(樂堂堂) : 즐거움이 집집마다 머뭄.
- 116) 시행(施行) : 실지로 행함.
- 117) 공산이치(共産理致) : 공산(共産)하게 만드는 이치. <개명공산가>에서는 효제(孝悌)와 우애(友愛)를 공산의 이치로 보고 있음.
- 118) 대강대강(大綱大綱) : 자세하지 않게 기본적인 부분만 들어 보이는 정도.
- 119) 호생지심(好生之心) : 남을 잘 되게 하려는 착한 마음.
- 120) 삼재(三才) : 삼재와 인륜(人倫). 삼재는 우주의 세 가지 근원을 뜻하는 말로, 하늘(天)과 땅(地), 사람(人)을 가리키고, 인륜은 인관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와 도리를 뜻함.
- 121) 화육만물(化育萬物) : 만물(萬物)을 기름.
- 122) 기리기연(其理其然) :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이치.
- 123) 허다만물(許多萬物) : 수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 124) 수다(數多) : 수효가 많음.

- 125) 천지일기(天地一氣) :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하늘과 땅의 기운.
- 126) 동기연지(同氣連枝) : 형제는 부모의 기운(氣運)을 같이 받았으니 한 나무의 가지와 같음.
- 127) 애이육지(愛而育之) : 사랑으로 기름.
- 128) 지성지효(至誠至孝) : 지극한 정성으로 효를 다함.
- 129) 사해팔방(四海八方) : 온 세상.
- 130) 개위형제(皆爲兄弟) : 모두 형제가 됨.
- 131) 형제지의(兄弟之誼) : 형제 사이처럼 정답게 지내는 벗의 우의(友誼).
- 132) 천지정위(天地正位) : 하늘과 땅의 위치가 바로 정해짐.
- 133) 위기(違其) : 그것을 어김.
- 134) 효제(孝悌) : 부모(父母)에 대한 효도(孝道)와 형제(兄弟) 간의 우애(友愛).
- 135) 이치리자(理致理字) : 이치(理致)의 뜻을 가진 ‘리(理)’라는 글자. 이치(理致)란 자연과 사물(事物)의 정당한 조리(條理) 또는, 그 도리(道理)에 맞는 취지(趣旨)를 의미함.
- 136) 부자일신(父子一身) : 아버지와 자식은 한 몸(一身)임.
- 137) 부자자효(父慈子孝) :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로우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함.
- 138) 비(比)해 보면 : 비교하거나 견주어 보면.
- 139) 형제일신(兄弟一身) : 형제는 한 몸임.
- 140) 상구지도(相救之道) : 서로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는 방법.
- 141) 애달(愛怛)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림.
- 142) 자천자달호서인(自天子達乎庶人) : 천자로부터 서인(庶人)에까지 공통됨.
- 143) 인간오욕(人間汚慾) : 사람의 더럽고 추잡한 욕심.
- 144) 탐심(貪心) : 탐내는 마음.
- 145) 천성지품(天性之稟) : 하늘이 내려 저마다 타고난 기품(氣稟).
- 146) 의세(依勢) : 세력, 권세에 의지함.
- 147) 일일시시(日日時時) : 매일매일 시간마다.
- 148) 쟁론(爭論) : 서로 다투어 토론함.
- 149) 가소(可笑) : 터무니없거나 같잖아서 우스움.
- 150) 화(化)해 날 제 : 이루어져 태어날 때, 혹은 생육(生育) 될 때.
- 151) 사대오상(四大五常) : 네 가지 큰 것과 다섯 가지 떳떳함을 뜻하는 것으로 사대(四大)는 천지군부(天地群部)이고, 오상(五常)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임.
- 152) 애달(愛怛)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림.
- 153) 쟁론(爭論) : 서로 다투어 토론함.
- 154) 시비(是非) : 옳고 그름 혹은,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
- 155) 혼몽(昏夢) : 정신이 흐릿하고 가물가물한 어지러운 상태.
- 156) 포태(胞胎) : 임신. 태내의 아이를 싸는 얇은 막.
- 157) 혼몽(昏夢) : 정신이 흐릿하고 가물가물한 어지러운 상태.
- 158) 쟁론(爭論) : 서로 다투어 토론함.
- 159) 자내(子乃) : 너. 그대.
- 160) 화(化)해 날 제 : 이루어져 태어날 때, 혹은 생육(生育) 될 때.

- 161) 패물(佩物) : 몸치장을 하기 위해 차는 귀금속 따위로 만든 장식물(裝飾物).
- 162) 애달(愛怛)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림.
- 163) 자고(自古) : 예로부터.
- 164) 건부곤모(乾父坤母) :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임.
- 165) 매몰(埋沒) : (어리석음에) 파묻힘.
- 166) 천지시판(天地始判) 마련(磨鍊) 후(後)에 : 하늘과 땅이 비로소 나누어져 잘 갖추어진 뒤에.
- 167) 원형리정(元亨利貞) :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자라고 삶을 이룬 뒤 완성하게 되는 근본 원리. ‘원(元)’은 봄으로 만물의 시초인 인(仁)이 되고, ‘형(亨)’은 여름으로 만물이 자라 예(禮)가 되고, ‘리(利)’는 가을로 만물이 이루어져 의(義)가 되고, ‘정(貞)’은 겨울로 만물을 거두어 지(智)가 됨.
- 168) 허욕(虛慾) : 헛된 욕심.
- 169) 일일시시(日日時時) : 매일매일 시간마다.
- 170) 전(專)혀 : 아주, 오로지.
- 171) 막지소향(莫知所向) : (어디로) 향할 바를 알지 못함.
- 172) 어화(御化) : 가사(歌辭)에서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듣는 이로 하여금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을 떼는 역할을 하는 발어사(發語詞).
- 173) 도시(都是) : 도무지, 전혀.
- 174) 지성지극(至誠至極) : 지극한 정성으로 더없이 극진함.
- 175) 극진(極盡) :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를 씀.
- 176) 숭상(崇尙) : 높여 소중히 여김.
- 177) 일일시행(一一施行) : 매일 매일 실제로 행함.
- 178) 바이없네 : 전혀 없다.
- 179) 봉사손(奉祀孫) : 제사를 받드는 자손.
- 180) 봉사상제(奉祀上帝) : 상제(上帝) 즉, 하느님께 제사를 올림.
- 181)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 182) 계천립극(繼天立極) : 하늘의 뜻을 이어 법도를 세움.
- 183) 자고(自古) : 예로부터.
- 184) 유래(由來) :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혹은 생겨난 내력.
- 185) 일일상고(一一詳考) : 매일 매일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
- 186) 효칙(效則) : 본받아 법으로 삼음.
- 187) 일일습도(一一習道) : 매일매일 그 도리를 익힘.
- 188) 대지달효(大知達孝) : 모든 사람이 알고 인정할 만큼 한결같이 지극한 효도.
- 189) 계천립극(繼天立極) : 하늘의 뜻을 이어 법도를 세움.
- 190) 추존(推尊) : 높이 받들어 존경함.
- 191) 자내(子乃) : 너. 그대.
- 192) 도시(都是) : 도무지, 전혀.
- 193) 소견(所見) :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
- 194) 불상(不祥) : 상스럽지 못하거나, 좋지 않음.
- 195) 가련(可憐) : 불쌍하고 가엾음.

- 196) 자고급금(自古及今) :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 197) 제왕지도(帝王之道) : 제왕의 도. 유가(儒家)에서는 인(仁)과 덕(德)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그 이상으로 삼음.
- 198) 후생(後生) : 뒤에 태어나거나 뒤에 생김. 또는 그런 사람.
- 199) 효칙(效則) : 본받아 법으로 삼음.
- 200) 도시(都是) : 도무지, 전혀.
- 201) 만승천자(萬乘天子) : 천자(天子)나 황제(皇帝)를 높여 부르는 말.
- 202) 여간(如干) :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
- 203) 무도(無道) : 도리를 어겨 막됨.
- 204) 하갈상주(夏桀商紂) : 중국의 하(夏)나라 갈(桀)왕과 상(商)나라 주(紂)왕. 포악무도하여 폭군의 전형으로 꼽힘.
- 205) 필부(匹夫) : 한 사람의 남자, 혹은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
- 206) 비(比)하였고 : 견주었고, 비교하였고.
- 207) 진시황(秦始皇) : 중국 진(秦)나라의 제1대 황제(B.C.259~B.C.210)로 이름은 정(政).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하여 진(秦)을 세운 뒤, 스스로 황제라 칭함.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도량형·화폐의 통일, 만리장성의 증축, 아방궁의 축조, 분서갱유 따위로 위세를 떨침.
- 208) 위엄(威嚴) :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 209) 자칭(自稱) :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컬음.
- 210) 포악무도(暴惡無道) : 법도 도리도 없이 포악하다는 뜻으로, 사납고 악착하기가 이를 데 없음을 이르는 말.
- 211) 질 : 길(道).
- 212) 명명(明明) :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할 바가 없음.
- 213) 삼황오제(三皇五帝) : 중국 전설 속 상고(上古) 시대의 제왕.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삼황(三皇)은 복희씨(伏羲氏)·신농씨(神農氏)·여와씨(女媧氏) 혹은, 천황(天皇)·지황(地皇)·인황(人皇)을 가리키고, 오제(五帝)는 주로 황제(黃帝)·전욱(顓頊)·제곡(帝嚳)·당요(唐堯)·우순(虞舜)을 가리킴. 그러나 <개명공산가>에서는 ‘복희·신농·현원’을 삼황(三皇)으로, ‘소호(少昊)·전욱(顓頊)·고신(高辛)·당요(唐堯)·우순(虞舜)’을 오제(五帝)로 보고 있음.
- 214) 성현(聖賢) :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15) 존비귀천(尊卑貴賤) :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높음과 낮음, 또는 귀함과 천함.
- 216) 쟁론(爭論) : 서로 다투어 토론함.
- 217)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 218) 고금성인(古今聖人) :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 219) 효칙(效則) : 본받아 법으로 삼음.
- 220) 도덕군자(道德君子) : 도를 닦아 덕이 매우 높은 사람.
- 221) 이내(台乃) : ‘나’ 혹은 ‘나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222) 천개어자(天開於子) : 하늘이 자시(子時)에 열림. 자시(子時)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임.

- 223) 지벽어축(地關於丑) : 축시(丑時)
- 224) 지차(支次) : 다음으로.
- 225) 인간행도(人間行道) : 사람이 도를 닦고 행함.
- 226) 자고사적(自古事蹟) : 예로부터 내려오는 일의 자취와 행적.
- 227) 역력(歷歷)히 : 뚜렷이, 생생히.
- 228) 대강대강(大綱大綱) : 자세하지 않고 적당히 간단하게.
- 229) 자내(子乃) : 너. 그대.
- 230) 방불(彷彿)하거든 : 거의 비슷하거든.
- 231) 시행(施行) : 실지로 행함.
- 232) 천지시판(天地始判) 마련(磨鍊) 후(後)에 : 하늘과 땅이 비로소 나누어져 잘 갖추어진 뒤에.
- 233) 조화(造化) : 만물(萬物)을 낳고 자라고 죽게 하는, 영원(永遠) 무궁(無窮)한 자연의 이치.
- 234) 일기(一氣)중(中)에 : 한 가지 기운 가운데에.
- 235) 화(化)해 나서 : 이루어져 태어나서 또는 생육(生育)되어서.
- 236) 사시성쇠(四時盛衰) : 네 계절이 성하고 쇠하면서 변화함.
- 237) 춘추질대(春秋迭代) : 봄과 가을이 서로 번갈아 듦.
- 238) 마련(磨鍊) : 헤아려서 갖춤, 혹은 일이나 물건을 마름질하여 계획을 세움.
- 239) 불천불역(不遷不易) :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함.
- 240) 허다(許多) : 매우 많음.
- 241) 용마하도(龍馬河圖) : 중국 고대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 강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그림. 복희씨(伏羲氏)는 용마하도(龍馬河圖)에 의거해 주역의 팔괘를 그렸다고 함. 줄여 ‘하도(河圖)’라고 지칭함.
- 242) 출송(出送) : 내어 보냄.
- 243) 순환지리(循環之理) : 천지 만물의 성쇠(盛衰)가 서로 바뀌어 도는 이치.
- 244) 초야인민(草野人民) : 민간의 평범한 사람.
- 245) 심공(心工) : 마음이 무한히 넓고 큼을 허공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246) 하도(河圖) : 용마하도(龍馬河圖)를 이룸.
- 247) 복희씨(伏羲氏) :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제왕.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수위(首位)를 차지하며, 팔괘(八卦)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 함.
- 248) 하도이치(河圖理致) : 중국 고대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 강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졌던 ‘하도(河圖)’에 담긴 이치를 가리킴.
- 249)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 250) 고(故)로 : 까닭에.
- 251) 목덕이왕(木德以王) : 복희씨(伏羲氏)가 나무의 덕(木德)으로 왕노릇을 함. 木德(목덕)은 어진 정치하는 것을 가리킴.
- 252) 성인성자(聖人聖字) : 성인(聖人)을 의미하는 ‘성(聖)’이라는 글자. 성인(聖人)은 사리(事理)에 통달하고 덕과 지혜가 뛰어나 길이길이 받들어지고, 만인(萬人)의 스승이 되는 사람을 일컬음.
- 253) 인연(因緣) : 어떤 사물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내력. 즉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原因)과 그 인(因)으로 말미암아 얻을 간접적(間接的)인 힘을 가리킴.

- 254) 차차차차(次次次次) : 어떤 사물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조금씩 자꾸 진행하는 모양.
- 255) 천리(天理) : 하늘의 이치.
- 256) 선성(先聖) : 먼저 나서 만인의 모범이 된 옛날의 성인(聖人).
- 257) 후성(後聖) : 후세에 난 성인(聖人).
- 258) 신농씨(神農氏) :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삼황(三皇)의 한 사람. 화덕(火德)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불렸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 일컬음.
- 259) 천지우로(天地雨露) : 하늘과 땅과 비와 이슬. 특히 농사짓기와 관계되는 자연의 현상을 가리킴.
- 260) 조화(造化) : 만물(萬物)을 낳고 자라고 죽게 하는, 영원(永遠) 무궁(無窮)한 자연의 이치.
- 261) 춘생하장(春生夏長) 추수동장(秋收冬藏) : (만물이) 봄에 나고, 여름에는 자람. 그것이 가을이 되어 성숙하면 거두어 들이고, 겨울에는 감추어 둠. 즉 자연 순환의 법칙과 농사짓는 모습을 가리킴.
- 262) 마련(磨鍊) : 헤아려서 갖춤.
- 263) 이교후생(以教後生) : 그것으로써 후생(後生)들을 가르침.
- 264) 백초(百草) : 온갖 풀.
- 265) 박시제중(博施濟衆) : 은혜를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함.
- 266)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 267) 고(故)로 : 까닭에.
- 268) 신농씨(神農氏) :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삼황(三皇)의 한 사람. 화덕(火德)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불렸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 일컬음.
- 269) 성인성자(聖人聖字) : 성인(聖人)을 의미하는 ‘성(聖)’이라는 글자. 성인(聖人)은 사리(事理)에 통달하고 덕과 지혜가 뛰어나 길이길이 받들어지고, 만인(萬人)의 스승이 되는 사람을 일컬음.
- 270) 효칙(效則) : 본받아 법으로 삼음.
- 271) 현원씨(軒轅氏) : 중국 건국 신화에 나타나는 제왕으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군주임. 백성들에게 집짓는 법과 옷 짜는 법을 가르치고, 수레를 발명하였으며, 문자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천문과 역산을 시작하였음. ‘황제(黃帝)’로 일컬음.
- 272) 장양(長養) : 길러 양성함.
- 273) 천성지품(天性之稟) : 하늘이 내려 저마다 타고난 기품(氣稟).
- 274) 수련(修煉) : 인격, 기술, 학문 따위를 닦아서 단련함. 수련(修鍊) 혹은 수련(修練)과 같음.
- 275) 하도(河圖) : 용마하도(龍馬河圖)를 이룸.
- 276) 천리(天理) : 하늘의 이치.
- 277) 송구영신(送舊迎新)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 278) 제작주거(制作舟車) : 배와 수레를 만듦.
- 279) 이제불통(以濟不通) : (배와 수레를 이용하여) 서로 통하지 않는 곳을 건너게 함.
- 280) 역산(曆筭) : 책력(冊曆)과 산술(算術)에 관한 학문. 역산(曆算)과 같음.
- 281) 절후(節候) :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기후(氣候)의 표준점으로 15일 내지 16일에 한 번씩 돌아옴. 절기(節氣)와 같은 말.
- 282) 역천(逆天) : 하늘의 뜻을 어김.
- 283) 무도자(無道者) :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막된 사람.

- 284) 일일징치(一一懲治) : 일일이 징계하고 바로 잡아 다스림.
- 285) 순천(順天) : 하늘의 도리를 따름.
- 286) 유덕군자(有德君子) : 덕망(德望)이 있는 군자.
- 287) 제제(濟濟) : 많고 왕성함. 혹은 엄숙(嚴肅)하고 신중함.
- 288)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 289) 고(故)로 : 까닭에.
- 290) 현원씨(軒轅氏) : 중국 건국 신화에 나타나는 제왕으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군주임. 문자, 의복, 수레, 거울, 60갑자 등을 만들어 문명의 창시자로 숭배되고 있으며, ‘황제 현원(黃帝 軒轅)’으로 일컬음.
- 291) 어화(御化) : 가사(歌辭)에서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듣는 이로 하여금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을 떼는 역할을 하는 발어사(發語詞).
- 292) 삼황성덕(三皇聖德) : 세 분 황제(三皇)의 거룩한 덕. 삼황(三皇)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개명공산가>에서는 ‘복희씨 · 신농씨 · 현원씨’를 삼황(三皇)으로 보고 있음.
- 293) 오제지덕(五帝之德) : 다섯 분 황제(五帝)의 덕. 오제(五帝)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이 있으나 <개명공산가>에서는 ‘소호 금천 · 전욱 고양 · 제국 고신 · 제요 도당 · 제순 유우’를 오제로 봄.
- 294) 금천씨(金天氏) : 오제(五帝) 중 한 명으로 ‘소호 금천(少昊 金天)’으로 불림. ‘황제 현원(黃帝 軒轅)’의 아들로 태어나 황제가 승천한 후 왕위에 오름. 청양씨(靑陽氏) · 운양씨(雲陽氏) · 주선(朱宣)으로도 불림.
- 295) 고양씨(高陽氏) : 오제(五帝) 중 한 사람으로 ‘전욱 고양(顓頊 高陽)’으로 불림. ‘소호 금천(少昊 金天)’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름.
- 296) 고신씨(高辛氏) : 오제(五帝) 중 한 명이며 ‘제국 고신(帝嚳 高辛)’으로 불림. ‘전욱 고양(顓頊 高陽)’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름.
- 297) 도당씨(陶唐氏) : 오제(五帝) 중 한 명인 ‘요(堯)’를 가리킴. 요(堯)는 ‘제국 고신(帝嚳 高辛)’의 아들이며, 이름은 ‘방훈(放勳)’이고, ‘당요(唐堯)’ 또는 ‘제요 도당(帝堯 陶唐)’으로 불림. 중국 신화 속의 군주로 ‘순(舜)’과 함께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짐.
- 298) 유우씨(有虞氏) : 오제(五帝) 중 한 명인 ‘순(舜)’을 가리킴. 성은 ‘우(虞)’, 이름은 ‘중화(重華)’이고 ‘우순(虞舜)’ 또는 ‘제순 유우(帝舜 有虞)’로도 불림. ‘요(堯)’와 함께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며, ‘요순(堯舜)’이란 표현은 태평시대를 의미함.
- 299) 백성류(百姓類) : 일반 백성의 무리 가운데.
- 300) 천성지품(天性之稟) : 하늘이 내려 저마다 타고난 기품(氣稟).
- 301) 수련성심(修煉誠心) : 참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닦아서 단련함.
- 302) 하도이치(河圖理致) : 중국 고대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 강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졌던 ‘하도(河圖)’에 담긴 이치를 가리킴.
- 303) 천리순환(天理循環) : 천지 만물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하여 순환하는 이치.
- 304) 차차차차(次次次次) : 어떤 사물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조금씩 자꾸 진행하는 모양.
- 305) 시중(時中) : 그 당시의 사정에 알맞음. ‘시의(時宜)’와 같은 의미.
- 306) 시행(施行) : 실지로 행함.

- 307) 계천립극(繼天立極) : 하늘의 뜻을 이어 법도를 세움.
- 308) 오제성덕(五帝聖德) : 다섯 황제의 거룩한 덕.
- 309) 불망천추(不忘千秋) : 오랫동안 잊지 않음.
- 310) 송덕(頌德) : 공적(功績)이나 덕망(德望)을 찬양(讚揚)하여 기림.
- 311) 유우씨(有虞氏) : 오제(五帝) 중 한 명인 ‘순(舜)’을 가리킴. 성은 ‘우(虞)’, 이름은 ‘중화(重華)’이고 ‘우순(虞舜)’ 또는 ‘제순 유우(帝舜 有虞)’로도 불림. ‘요(堯)’와 함께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며, ‘요순(堯舜)’이란 표현은 태평시대를 의미함.
- 312) 역산(歷山) : 중국의 지명. 역산(歷山)의 농장에서 농지의 경계 때문에 분쟁이 있었는데 순(舜)이 가서 몸소 일을 하였더니 모두 그의 덕(德)에 감화되어 1년 만에 분쟁이 사라졌다는 임금이 되기 전의 일화가 있음.
- 313) 자생(自生) :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함.
- 314) 초야(草野) : 풀이 난 들이라는 뜻으로, 궁벽한 시골을 혹은 민간(民間)을 이르는 말.
- 315) 하빈(河濱) : 황하(黃河)의 물가. 하빈(河濱)에서 만들어진 도기(陶器)가 매우 조악하였으나 순(舜)이 직접 가서 그릇을 만들었더니 1년 만에 도기의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함.
- 316) 토기점(土器店) : 토기(진흙으로 만들어 구운 그릇)를 구워 파는 가게.
- 317) 뇌택(雷澤) : 중국 산둥성에 있는 연못. 뇌택(雷澤)에서 어장 문제로 분쟁이 있었으나 순(舜)이 가서 낚시질을 하자 1년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함.
- 318) 그러그러 : 그렇게 그렇게.
- 319) 도당씨(陶唐氏) : 오제(五帝) 중 한 명인 ‘요(堯)’를 가리킴. 요임금은 밭 갈고, 그릇 굽고,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을 하던 순(舜)을 천자로 세우고 정치를 맡겨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음.
- 320) 유정유일(惟精惟一) : 오직 정성스럽게 한결같이, 혹은 오직 정신을 하나로 모아.
- 321) 전수심법(傳授心法) : 전하여 준 정신(情神), 혹은 마음을 쓰는 법.
- 322) 지성무식(至誠無息) : 온갖 정성을 다하여 쉬지 아니함.
- 323) 용마하도(龍馬河圖) : 중국 고대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 강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그림. 복희씨(伏羲氏)는 용마하도(龍馬河圖)에 의거해 주역의 팔괘를 그렸다고 함.
- 324) 천성지품(天性之稟) : 하늘이 내려 저마다 타고난 기품(氣稟).
- 325) 대지달효(大知達孝) : 모든 사람이 알고 인정할 만큼 한결같이 지극한 효도.
- 326) 귀위천자(貴爲天子) 부유사해(富有四海) : 귀하기로는 천자가 되고, 부유하기로는 사해(四海, 온 세상)를 소유함.
- 327) 귀위천자(貴爲天子) : 귀하기로는 천자가 됨.
- 328) 부유사해(富有四海) : 온 세상을 소유하는 부(富).
- 329) 아황(娥皇) 여영(女英) : 요(堯)임금의 두 딸. 요(堯)임금은 순(舜)의 훌륭한 평판을 듣고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순(舜)에게 출가시켜 그를 등용하였음.
- 330) 순(順)하게 받아 : 이어 받아.
- 331) 일일시행(一一施行) : 매일 매일 실제로 행함.
- 332) 경경불매(耿耿不寐) :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염려가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함.
- 333) 한(恨)한 고(故)로 : 한스럽게 생각한 까닭에.
- 334) 요순지도(堯舜之道) 효제이이(孝悌而已) : 『맹자(孟子)』, 「고자(告子)」 하(下)에 나오는 구절

로,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의 도(道)는 어버이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로운 것일 뿐이라는 뜻.

335) 효칙(效則) : 본받아 법으로 삼음.

336) 어화(御化) : 가사(歌辭)에서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듣는 이로 하여금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을 떼는 역할을 하는 발어사(發語詞).

337) 삼황오제(三皇五帝) : 중국 전설 속 상고(上古) 시대의 제왕.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개명공산가>에서는 ‘복희 · 신농 · 헌원’을 삼황(三皇)으로, ‘소호(少昊) · 전옥(顓頊) · 고신(高辛) · 당요(唐堯) · 우순(虞舜)’을 오제(五帝)로 보고 있음.

338) 하은주(夏殷周) 삼대지덕(三代之德) : 중국 상고(上古) 시대에 있었던 하(夏) · 은(殷) · 주(周) 3대 왕조의 덕(德). 이 시기는 덕화(德化)에 의한 왕도(王道) 정치가 실시되었던 이상적인 태평성대임.

339) 후세막급(後世莫及) : 뒤 세대가 (도저히) 미칠 수 없음.

340) 우탕문무(禹湯文武) :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성군(聖君)인 하(夏)나라의 우(禹)임금과 은(殷)나라의 탕(湯)임금, 주(周)나라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341) 수명우천(受命于天) : 하늘의 명을 받음.

342) 화(化)해 날 제 : 이루어져 태어날 때, 혹은 생육(生育) 될 때.

343) 사대오상(四大五常) : 네 가지 큰 것과 다섯 가지 떳떳함을 뜻하는 것으로 사대(四大)는 천지군부(天地群部)이고, 오상(五常)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임.

344) 동류(同類) : 같은 종류나 부류.

345) 화(化)해 나서 : 이루어져 태어나서.

346) 하도이치(河圖理致) : 중국 고대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 강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졌던 ‘하도(河圖)’에 담긴 이치를 가리킴.

347) 천리(天理) : 하늘의 이치.

348) 하우씨(夏禹氏) : 중국 하(夏)나라의 우(禹)임금을 이르는 말. 치수(治水)의 공적으로 순(舜)임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름.

349) 유우씨(有虞氏) : 오제(五帝) 중 한 명인 순(舜)임금을 가리킴.

350) 전수심법(傳授心法) : (순임금이) 전하여 준 정신(情神), 혹은 마음을 쓰는 법.

351) 수련성심(修煉誠心) : 참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닦아서 단련함.

352) 천성자연(天性自然) : 하늘이 내려 본래 타고난 그대로의 성품.

353) 순수천시(順隨天時) : 때를 따라서 돌아가는 자연현상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따름.

354) 요순교훈(堯舜敎訓) : 요임금과 순임금이 전하여준 가르침.

355) 구년홍수(九年洪水) : 9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큰 홍수. 요임금 시절 대홍수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섭정(攝政)을 하던 순(舜)이 우(禹)에게 치수(治水)를 명하였음.

356) 천명(天命) : 하늘이 내린 명령. 유교에서는 하늘의 명령, 즉 천명(天命)을 받아 땅위의 성현(聖賢)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봄.

357) 치수(治水) : 하천(河川) · 호수(湖水) 등을 잘 다스려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음.

358) 억조창생(億兆蒼生) : 수많은 백성.

359) 호생지심(好生之心) : 남을 잘 되게 하려는 착한 마음.

360) 버리 :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 또는 밑바탕.

361) 주류사해(周流四海) :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님.

- 362) 삼과기문(三過其門) : 그 문을 세 번 지나침.
- 363) 불입(不入) : 들어가지 않음.
- 364)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 365) 고(故)로 : 까닭에.
- 366) 명천(明天) :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느님.
- 367) 오행상생(五行相生) : 오행이 서로 가까이 조화를 이루며 순환해서 생성하여 주는 이치, 즉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의 이치. 오행은 우주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인 금(金)·수(水)·목(木)·화(火)·토(土)를 이룸.
- 368) 순수지리(順數之理) : 오행의 운행이 순서를 잃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흐르는 이치.
- 369) 오정시(午丁時) : 오시(午時)와 정시(丁時). 오시는 오전 열한 시부터 오후 한 시까지이고, 정시는 오후 열두 시 반부터 한 시 반까지임.
- 370) 거의 한가 : 거의 되었는가.
- 371) 일음시생(一陰始生) : 음기(陰氣)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됨.
- 372) 오행상극(五行相克) : 오행이 서로 배척하고 부정하는 이치, 즉 토극수(土剋水), 수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 목극토(木剋土)의 이치.
- 373) 역수지리(逆數之理) : 오행의 운행이 순리대로 흐르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이치.
- 374) 구미낙서(龜尾洛書) :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禹王)이 홍수를 다스렸을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쓰여 있었다는 글. 이것을 바탕으로 우왕이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문왕이 ‘후천팔괘’를 만들었다 함.
- 375) 출송(出送) : 내어 보냄.
- 376) 하우씨(夏禹氏) :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을 이르는 말.
- 377) 낙서지리(洛書之理) : 낙서(洛書)에 담긴 이치.
- 378) 후천지수(後天之數) : 낙서(洛書) 9수를 가리킴. 즉 천지자연의 이치를 정돈하고 여기에 사람의 일을 반영해 형상화한 후천팔괘를 의미함.
- 379) 일일성출(一一成出) : 매일 매일 이루어 냄.
- 380) 이교후생(以教後生) : 그것으로써 후생(後生)들을 가르침.
- 381) 일일시행(一一施行) : 매일 매일 실제로 행함.
- 382) 경외지심(敬畏之心) :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 383) 일궂십기(一饋十起) : 일이 매우 바쁘거나 일에 열중함을 이르는 말. 중국 하나라의 우왕이 한 끼의 밥을 먹는 도중에 열 번이나 일어나 찾아온 손님을 맞이했다는 데서 유래함.
- 384) 중생제도(衆生濟渡) : 많은 사람들을 고택(苦海)에서 건져 구해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줌.
- 385) 인유과실(人有過失) : 사람이 가진 잘못, 허물, 실수.
- 386) 하차배알(下車拜謁) : 수레에서 내려 직접 감사하고, 인사를 올림.
- 387) 하우씨덕(夏禹氏德) :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의 덕.
- 388) 성탕지덕(成湯之德) : 중국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덕. 탕왕은 포악무도(暴惡無道) 했던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물리치고 은(殷)나라를 창건한 왕으로 성탕(成湯)이라고도 함.
- 389) 용마하도(龍馬河圖) : 중국 고대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 강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그림. 복희씨(伏羲氏)는 용마하도(龍馬河圖)에 의거해 주역의 팔괘를 그렸다고 함.

- 390) 순수지리(順數之理) : 오행의 운행이 순서를 잃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흐르는 이치.
- 391) 구미낙서(龜尾洛書) :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禹王)이 홍수를 다스렸을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쓰여 있었다는 글. 이것을 바탕으로 우왕이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문왕이 ‘후천팔괘’를 만들었다 함.
- 392) 역수지리(逆數之理) : 오행의 운행이 순리대로 흐르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이치.
- 393) 상응상조(相應相助) : 서로 어우러져 도움.
- 394) 비(比)하여서 : 견주어서.
- 395) 오미신시(午未申時) : 일곱 번째 지지(地支)인 오시(午時)
- 396) 한재(旱災) : 가뭄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앙.
- 397) 허다(許多) : 매우 많음.
- 398) 은왕성탕(殷王成湯) : 은(殷)나라를 창건한 탕왕을 지칭하는 말.
- 399) 하갈(夏桀) : 하(夏)나라의 걸왕(桀王). 걸(桀)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매우 포악무도(暴惡無道)하여, 탕왕에 의해 토벌되었음.
- 400) 무도(無道) : 도리를 어겨 막됨.
- 401) 칠년대한(七年大旱) : 은나라 탕왕 때에 있었던 칠 년 동안이나 내리 계속된 큰 가뭄.
- 402) 만물고갈(萬物枯渴) :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라서 없어짐.
- 403) 천시(天時) : 하늘의 도움이 있는 시기.
- 404) 시행차(施行次) : 어떤 일을 실제 행할 기회나 순간.
- 405) 도우상림(禱雨桑林) : 상림(桑林)에서 비가 내리기를 빕.
- 406) 제수(祭需) : 제사에 올리는 제물. 칠년대한(七年大旱)이 계속될 때 탕왕은 몸소 희생(犧牲)이 되어 상림(桑林)의 들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올려 큰 비를 내리게 했음.
- 407) 감응지리(感應之理) : 믿거나 비는 정성이 하늘에게 통하는 이치.
- 408) 전조단발(剪爪斷髮) : 제사를 지내거나 기원을 올리기 전에 근신하는 뜻으로 손톱을 깎고 머리털을 자름.
- 409) 신영백모(身嬰白茅) : 근신하는 뜻으로 좋은 옷을 벗고 몸에 흰 띠풀을 두름.
- 410) 지성감천(至誠感天) : 지극한 정성에 하늘도 감동함.
- 411) 발원(發願) : 신에게 소원을 빕.
- 412) 대우방수(大雨方數千里) : 큰 비가 사방 수천리에 내림.
- 413) 잠시간(暫時間) : 짧은 시간 동안.
- 414) 천덕(天德) : 만물을 성성하게 하는 하느님의 덕.
- 415) 성인지덕(聖人之德) : 성인(聖人)의 덕.
- 416) 은왕성탕(殷王成湯) : 은(殷)나라를 창건한 탕왕을 지칭하는 말.
- 417) 문무지덕(文武之德) : 문왕과 무왕의 덕.
- 418) 서후백(西侯伯) : 서백(西伯)과 같은 말. 서백은 문왕(武王)의 칭호로 서방 제후(諸侯)의 우두머리라는 뜻임.
- 419) 주문왕(周文王) : 주(周)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은 명군으로 무왕의 아버지임. 그가 죽은 뒤, 아들 무왕이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창건하였으며, 그에게 문왕이라는 시호를 추존하였음.
- 420) 복희씨(伏羲氏) :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제왕.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수위(首位)를 차지하며, 용마

하도에 의거해 팔괘(八卦)를 처음으로 만들었음.

421) 선천팔괘(先天八卦) : 복희씨가 만든 팔괘이며, ‘복희팔괘’로도 불림. 선천팔괘란 천지만물의 이치와 음양시종(陰陽始終)의 변화를 여덟 가지의 상(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으로 나타내 것을 일컬음.

422) 오행상생(五行相生) : 오행이 서로 가까이 조화를 이루며 순환해서 생성하여 주는 이치, 즉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의 이치. 오행은 우주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인 금(金)·수(水)·목(木)·화(火)·토(土)를 이룸.

423) 순수지리(順數之理) : 오행의 운행이 순서를 잃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흐르는 이치.

424) 건도성남(乾道成男) : 양성(陽性)인 건도(乾道)가 남성(男性)을 이룸.

425) 삼십이괘(三十二卦) : 팔괘로부터 십육괘(十六卦), 삼십이괘(三十二卦). 육십사괘(六十四卦)로 점차 분화되어 확장되는데, 주역(周易)에서는 64괘를 기준으로 함.

426) 하우씨(夏禹氏) : 중국 하(夏)나라의 우(禹)임금을 이르는 말. 치수(治水)의 공적으로 순(舜)임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름.

427) 후천팔괘(後天八卦) : 문왕이 낙서(洛書)를 바탕으로 만든 팔괘이며, ‘문왕팔괘’로도 불림. 선천팔괘는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묘사해 놓은 체계로 상생(相生)의 원리를 나타내며, 후천팔괘는 여기에 인간의 기본적 성정(性情)이 반영된 것으로 상극(相克)의 원리를 나타낸다고 함. 원래 구미낙서(龜尾洛書)를 보고 하나라 우왕이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주나라 문왕이 ‘후천팔괘’를 만들었다고 전해지지만 <개명공산가>에서는 우왕이 ‘후천팔괘’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음.

428) 오행상극(五行相克) : 오행이 서로 배척하고 부정하는 이치, 즉 토극수(土剋水), 수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 목극토(木剋土)의 이치.

429) 역수지리(逆數之理) : 오행의 운행이 순리대로 흐르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이치.

430) 곤도성녀(坤道成女) : 음성(陰性)인 곤도(坤道)가 여성을 이룸.

431) 건곤지도(乾坤之道) : 천지 음양(陰陽)의 근본적인 원리.

432) 육십사괘(六十四卦) : 운명 판단의 원리. 복희씨가 처음으로 8괘를 만들고, 그 뒤사람이 그 중 2괘씩을 겹쳐 중괘(重卦) 64개를 만들었다고 함. 중괘가 이루어짐으로써 6효(爻)가 비로소 성립됨.

433) 삼백팔십사효(三百八十四爻) : 효(爻)란 주역의 괘(卦)를 나타내는 가로획을 가리킴. 주역은 64괘로 이루어져 있고, 각 괘는 6효로 되어 있으니 결국 주역에는 모두 384효가 있음.

434) 천지지도(天地之道) : 천지의 변하지 아니하는 도, 또는 하늘(天)의 도와 땅(地)의 도, 양(陽)의 도와 음(陰)의 도.

435) 순환지리(循環之理) : 천지 만물의 성쇠(盛衰)가 서로 바뀌어 도는 이치.

436) 문왕성덕(文王聖德) : 문왕의 거룩한 덕.

437) 지중(至重) : 더할 수 없이 중요함.

438) 무왕지덕(武王之德) : 무왕의 덕. 무왕은 기원전 1046년 서쪽 제후들을 규합하여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주(周)나라를 건국하였음.

439) 천명소시(天命所施) : 하늘이 명령하여 행하는 바.

440) 불실시중(不失時中) : 그 당시의 사정에 알맞음을 잃지 아니함.

441) 시행(施行) : 실지로 행함.

442) 불기회자(不期會者) 팔백여국(八百餘國)거느리고 : 서로 모이지 않았던 800여 나라들을 회합하여

거느리고. 무왕은 맹진(盟津)에서 서쪽 800여 제후(諸侯)들의 회맹(會盟)을 이끌어 내어 이들과 함께 부패한 은나라 주왕(紂王)을 토벌하고 주(周)나라를 건국하였음.

443) 일착응의(一着戎衣) : 전투복을 입음.

444) 태공병법(太公兵法) : 주(周)나라 무왕(武王)을 도와 은(殷)을 멸망시킨 강태공이 지었다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병학(兵學) 저서. 태공의 본명은 강상(姜尙)이고, 강자아(姜子牙)로도 불림.

445) 일로이안(一怒以安) 천하지민(天下之民) : 한번 성냄으로써(떨쳐 일어남으로써)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함.

446) 오미신시(午未申時) : 일곱 번째 지지(地支)인 오시(午時)

447) 다 진(盡)하고 : 다 끝나고.

448) 유시(酉時) : 유시(酉時)는 17시에서 19시 사이를 가리킴.

449) 왕(旺)하던가 : 왕성하던가.

450) 포악무도(暴惡無道) : 법도 도리도 없이 포악하다는 뜻으로, 사납고 악착하기가 이를 데 없음을 이르는 말.

451) 상주(商紂) : 상(商)나라의 주(紂)왕. 주(紂)는 은(殷)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하(夏)나라의 걸(桀)왕과 함께 악덕천자(惡德天子)의 대표적인 존재로 인식됨. 상(商)는 은(殷)나라의 본디 명칭임.

452) 천명(天命) : 하늘이 내린 명령. 유교에서는 하늘의 명령, 즉 천명(天命)을 받아 땅위의 성현(聖賢)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봄.

453) 억조창생(億兆蒼生) : 수많은 백성.

454) 제도(濟渡) :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 구해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줌.

455)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456) 대강대강(大綱大綱) : 자세하지 않고 적당히 간단하게.

457) 요순지세(堯舜之世) :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세상.

458) 고기직설(皐夔稷契) : 순임금의 신하로 법률을 만든 ‘고도(皐陶)’와 순임금의 신하인 ‘기(夔)’, 주나라 무왕의 조상인 ‘후직(后稷)’, 은나라 조상 ‘설(契)’을 함께 일컫은 말. 설(契)은 설(僕) 또는 설(高)로 쓰기도 함.

459) 우탕지세(禹湯之世) : 우임금과 탕임금이 다스리던 세상.

460) 이윤전설(伊尹傳説) : 은(殷)나라의 현신(賢臣)이었던 이윤(伊尹)과 전설(傳説)을 함께 일컫은 말. 이윤은 탕왕을 도와 하(夏)나라의 걸왕을 멸망시켰고, 전설은 은나라를 증흥시켰음.

461) 문무지세(文武之世) : 문왕과 무왕이 다스리던 세상.

462) 주공소공(周公召公) : 주(周)나라의 건국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던 주공과 소공을 함께 일컫은 말.

463) 기자미자(箕子微子) : 기자와 미자는 은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주(紂)임금의 폭정(暴政)에 대해 간언(諫言)하였던 인물임. 비간(比干)과 함께 은(殷) 말기의 세 명의 어진 사람(三仁)으로 꼽힘.

464) 인간오욕(人間汚慾) : 사람의 더럽고 추잡한 욕심.

465) 성심수련(誠心修煉) : 참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닦아서 단련함.

466) 요순우탕(堯舜禹湯) 문무지덕(文武之德) : 요임금과 순임금, 우왕과 탕왕, 문왕과 무왕의 덕.

467) 수다창생(數多蒼生) : 수많은 백성.

468)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 469) 노(魯)나라 : 노(魯)나라는 주(周)나라 주공(周公)의 아들 백금(伯禽)이 세운 나라이며, 공자(孔子)의 출신지이기도 함.
- 470) 공부자(孔夫子) : 공자(孔子)의 높임말. 자는 중니(仲尼), 이름은 구(丘)이며, 공자의 ‘자(子)’는 존칭임. 유교(儒敎)의 시조로, 인(仁)을 최고의 덕으로 여김.
- 471) 초야(草野) : 풀이 난 들이라는 뜻으로, 궁벽한 시골을 혹은 민간(民間)을 이르는 말(草野).
- 472) 혈육부친(血肉父親) 조실(早失)하고 :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 473) 의탁(依託) :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 474) 빈천자(貧賤者) : 가난하고 천한 사람.
- 475) 주역(周易) : 유교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역경(易經)』. 주역(周易)이란 주(周)나라의 역(易)이란 뜻임. 역(易)은 ‘바뀌다, 변하다’란 뜻이며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것임. 8괘와 64괘, 그리고 괘사(卦辭)· 효사(爻辭)· 십익(十翼)으로 되어 있음.
- 476) 지성무식(至誠無息) : 온갖 정성을 다하여 쉬지 아니함.
- 477) 위편삼절(韋編三絶) : 가족으로 맨 책끈이 세 번이나 닳아 끊어졌다는 뜻으로 독서에 힘을 쏟을 이르는 말.
- 478) 건곤지도(乾坤之道) : 천지 음양(陰陽)의 근본적인 원리.
- 479) 육십사괘(六十四卦) : 운명 판단의 원리. 복희씨가 처음으로 8괘를 만들고, 그 뒤사람이 그 중 2괘씩을 겹쳐 중괘(重卦) 64개를 만들었다고 함. 중괘가 이루어짐으로써 6효(爻)가 비로소 성립됨.
- 480) 삼백팔십사효(三百八十四爻) : 효(爻)란 주역의 괘(卦)를 나타내는 가로획을 가리킴. 주역은 64괘로 이루어져 있고, 각 괘는 6효로 되어 있으니 결국 주역에는 모두 384효가 있음.
- 481) 순환지리(循環之理) : 천지 만물의 성쇠(盛衰)가 서로 바뀌어 도는 이치.
- 482) 조술요순(祖述堯舜) : 요임금과 순임금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보충·서술함.
- 483) 문무지덕(文武之德) : 문왕과 무왕의 덕.
- 484) 찬(讚)하시고 : 기리어 칭찬하시고.
- 485) 계왕성개래학(繼往聖開來學) : 성인(聖人)의 도를 계속 이어 가 후학들을 깨우침.
- 486) 고(故)로 : 까닭에.
- 487) 후생(後生) : 뒤에 태어나거나 뒤에 생김. 또는 그런 사람.
- 488) 공부자지(孔夫子之) 성덕(聖德)이 반유현어요순(反有賢於堯舜)이라 : 공자의 거룩한 덕은 요임금과 순임금의 덕에 어찌 더 있는 것이라.
- 489) 용마하도(龍馬河圖) : 중국 고대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 강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그림. 복희씨(伏羲氏)는 용마하도(龍馬河圖)에 의거해 주역의 팔괘를 그렸다고 함.
- 490) 선천지수(先天之數) : 하도(河圖) 10수를 가리킴. 즉 천지자연의 원리와 음양의 배열을 형상화한 선천팔괘를 의미함.
- 491) 석양운(夕陽運) : 기우는 운수, 줄지 않은 운수.
- 492) 첩환천하(輶環天下) : (교화(教化)를 위해)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닌다는 뜻.
- 493) 부득기위(不得其位) : 지위를 얻지 못함.
- 494) 슬하제자(膝下弟子) 삼천지도(三千之徒) : 아래에 두고 가르침을 주었던 제자 삼천명의 무리.
- 495) 초야인민(草野人民) : 민간의 평범한 사람.
- 496) 인고(因苦) :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

- 497) 부자교훈(夫子敎訓) : 공부자(孔夫子)의 가르침.
- 498) 일일시시(日日時時) : 매일매일 시간마다.
- 499) 습도(習道) : 도리(道理) 혹은 이치(理致)를 익힘.
- 500) 칠십이인(七十二人) : 공자의 삼천 명 제자 중 육예(六藝
- 501) 도통(道通) : 오묘(奧妙)한 이치(理致)를 깨달아서 통(通)함.
- 502) 천지도수(天地度數) : 천지만물의 운행의 올바른 법칙.
- 503) 영허지리(盈虛之理) : 가득 차다가 비워지는 이치, 즉 천지만물이 성하고 쇠하여 순환하는 이치. 일반적으로는 주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말함.
- 504) 인사소위(人事所爲) : 사람의 일로 하여야 할 바.
- 505) 이교후생(以敎後生) : 그것으로써 후생(後生)들을 가르침.
- 506) 자사맹자(子思孟子) : 유학 전승에 힘쓴 자사와 맹자를 가리킴. 자사는 노(魯)나라의 유학자로 공자의 손자이며, 『중용(中庸)』의 저자로 전함. 맹자는 공자의 유교사상을 자사에게서 배워 이를 더욱 발전시킨 전국시대 유학자임.
- 507) 시운(時運) : 그 시대의 운수.
- 508) 조실부모(早失父母) : 일찍 부모님을 여읜.
- 509) 수명우천(受命于天) : 하늘의 명을 받음.
- 510) 품성(稟性) : 타고난 성질.
- 511) 일일습도(一一習道) : 매일매일 그 도리를 익힘.
- 512) 천은지덕(天恩地德) :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덕.
- 513) 자고(自古) : 예로부터.
- 514) 유전(遺傳) : 물려받아 내려옴.
- 515) 어화(御化) : 가사(歌辭)에서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듣는 이로 하여금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을 떼는 역할을 하는 발어사(發語詞).
- 516) 요탁(料度) : 예상함. 미루어 헤아림.
- 517) 이내(台乃) : ‘나’ 혹은 ‘나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518) 삼재오행(三才五行) : 삼재와 오행. 삼재(三才)란 우주의 3가지 근원을 뜻하는 말로, 천(天)·지(地)·인(人)을 가리키며, 오행(五行)은 우주(宇宙) 사이를 쉬지 않고 운행(運行)하는 다섯 가지 원소인 ‘쇠(金)·나무(木)·물(水)·불(火)·흙(土)’을 의미함.
- 519) 화(和)한 몸이 : 모여 합쳐진 (모여 합쳐져 이루어진) 몸이.
- 520) 자고역대(自古歷代) : 예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시대.
- 521) 통고금(通古今) : 옛날과 지금을 통틀어.
- 522) 출세인간(出世人間) : 인간 세상에 나옴.
- 523) 지성지극(至誠至極) : 지극한 정성으로 더없이 극진함.
- 524) 계천립극(繼天立極) : 하늘의 뜻을 이어 법도를 세움.
- 525) 자행자지(自行自止) :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그만둔다는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함을 이르는 말.
- 526) 불순도덕(不順道德) :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따르지 아니함.
- 527) 애달(愛怛)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림.

- 528) 천은지덕(天恩地德) :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덕.
- 529) 자자위선(孜孜爲善) : 부지런히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함.
- 530) 자자위리(孜孜爲利) : 부지런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힘씀.
- 531) 애달(愛怛)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림.
- 532) 만세무강(萬世無疆) : 오랜 세월에 걸쳐 끝이 없음.
- 533) 범부(凡夫) : 평범한 사내.
- 534) 출세흔적(出世痕迹) : 세상에 나온 자취.
- 535) 금금업업(兢兢業業) : 항상 조심하여 삼감. 또는 그런 모양.
- 536) 동기연지(同氣連枝) : 형제는 부모의 기운(氣運)을 같이 받았으니 한 나무의 가지와 같음.
- 537) 상구지도(相救之道) : 서로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는 방법.
- 538) 고금이치(古今理致) : 예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정당한 도리.
- 539) 일반(一般)이니 : 한 가지이니, 별 차이가 없으니.
- 540) 천지도수(天地度數) : 천지만물의 운행의 올바른 법칙.
- 541) 영허지리(盈虛之理) : 가득 차다가 비워지는 이치, 즉 천지만물이 성하고 쇠하여 순환하는 이치. 일반적으로는 주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말함.
- 542) 건곤지도(乾坤之道) : 천지 음양(陰陽)의 근본적인 원리.
- 543) 수질(數迭) : 운수가 번갈아 됨.
- 544) 양선음선(陽旋陰旋) : 별과 그늘이 번갈아 도는 것, 즉 양과 음의 순환.
- 545) 양사(兩事) : 두 가지 일.
- 546) 상생지리(相生之理) : 오행(五行)이 서로 가까이 조화를 이루며 순환해서 생성하여 주는 이치. 즉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의 이치.
- 547) 선천지수(先天之數) : 하도(河圖) 10수를 가리킴. 즉 천지자연의 원리와 음양의 배열을 형상화한 선천팔괘를 의미함.
- 548) 은복(隱伏) : 엿드려 숨음.
- 549) 상극지리(相克之理) : 오행(五行)이 서로 배척하고 부정하는 이치. 즉 토극수(土剋水), 수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 목극토(木剋土)의 이치.
- 550) 후천지수(後天之數) : 낙서(洛書) 9수를 가리킴. 즉 천지자연의 이치를 정돈하고 여기에 사람의 일을 반영해 형상화한 후천팔괘를 의미함.
- 551) 흥왕(興旺) : 매우 번창하고 왕성함.
- 552) 순수천명(順受天命) : 하늘의 명을 받들어 따름.
- 553) 제석천궁(帝釋天宮) : 제석천이 사는 궁. 제석천은 원래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임금으로, 사천왕을 통솔하면서 불법과 불제자를 보호하는 수호신임. <개명공산가>에서는 제석천과 하늘님을 같이 보고 있음.
- 554) 은거산림(隱居山林) : 세상에서 벗어나 산림에서 숨어 지냄.
- 555) 지성지극(至誠至極) : 지극한 정성으로 더없이 극진함.
- 556) 애달(愛怛)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림.
- 557)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 : 중국 상고(上古)시대에 있었던 하(夏) · 은(殷) · 주(周) 3대 왕조. 이 시기는 덕화(德化)에 의한 왕도(王道) 정치가 실시되었던 이상적인 태평성대임.

- 558) 구미낙서(龜尾洛書) :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禹王)이 홍수를 다스렸을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쓰여 있었다는 글. 이것을 바탕으로 우왕이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문왕이 ‘후천팔괘’를 만들었다 함.
- 559) 역수지행(逆數之行) : 오행의 운행이 순리대로 흐르지 아니하고 거스름.
- 560) 사해팔방(四海八方) : 온 세상.
- 561) 기국(器局) : 사람의 재능과 도량을 아울러 이르는 말. 기량(器量)과 같음.
- 562) 동요(搖動) :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움직임.
- 563) 백천만방(百千萬邦) : 온갖 나라.
- 564) 경쟁기국(競爭器局) : 이기기 위해 기량을 서로 다툼.
- 565) 전장불식(戰場不熄) : 전쟁이 그치지 아니함.
- 566) 애달(愛怛)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림.
- 567) 매몰(埋沒) : (어리석음에) 파묻힘.
- 568) 일일시시(日日時時) : 매일매일 시간마다.
- 569) 영웅(英雄) :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웅(雄)은 웅(雄)과 동자(同字).
- 570) 조화(造化) : 일을 꾸미는 재간.
- 571) 재조(才調) : 재주의 원말. 재조(才操)를 쓰기도 함.
- 572) 대원수(大元帥) : 국가의 전군(全軍)을 통솔하는 최고 계급인 원수(元帥)를 더 높여 이르는 말.
- 573) 부원수(副元帥) : 원수에 다음가는 군의 통솔자.
- 574) 대장(大將) : 원수의 아래, 중장의 위에 해당하는 군대 계급.
- 575) 중군(中軍) : 각 군영(軍營)에서 대장이나 절도사, 통제사 등의 밑에서 군대를 통할하던 장수.
- 576) 선봉(先鋒) : 맨 앞에 나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 혹은 그 자리에 선 사람.
- 577) 후봉(後鋒) : 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 혹은 그 자리에 선 사람.
- 578) 병졸(兵卒) : 일반 군사.
- 579) 사졸(士卒) : 일반 군사.
- 580) 취당(聚黨) : 목적, 의견, 행동 따위를 같이 하는 무리를 불러 모음.
- 581) 공투쟁국(攻鬪爭局) : 싸우고 다투는 형국.
- 582) 인력(人力) : 사람의 힘.
- 583) 천리(天理) : 하늘의 이치, 도리.
- 584) 동두철액(銅頭鐵額) : 성질이 모질고 거만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두철신(銅頭鐵身)과 같은 말.
- 585) 항장(項莊) : 항우(項羽)의 조카. 홍문연(鴻門宴)에서 유방(劉邦)을 죽이려고 칼춤을 추었으나 성공하지 못함.
- 586) 허다(許多) : 매우 많음.
- 587) 조화(造化) : 만물(萬物)을 낳고 자라고 죽게 하는, 영원(永遠) 무궁(無窮)한 자연의 이치.
- 588) 사시성쇠(四時盛衰) : 네 계절이 성하고 쇠하면서 변화함.
- 589) 불식순환(不息循環) : 쉬지 않고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 이어 돛.
- 590) 송구영신(送舊迎新)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 591) 위기(違其)않고 : 그 시기를 어기지 아니하고.
- 592) 염념불망(念念不忘) : 언제나 생각하여 잊지 않음.
- 593) 제왕지도(帝王之道) : 제왕의 도. 유가(儒家)에서는 인(仁)과 덕(德)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그 이상으로 삼음.
- 594) 임의용지(任意用之) : 자신의 의사(意思)대로 그것을 하게 함.
- 595) 자내(子乃) : 너. 그대.
- 596) 자내(子乃) : 너. 그대.
- 597) 수단(手段) :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솜씨와 께.
- 598) 득죄어천(得罪於天) : 하늘에 죄를 얻음.
- 599) 이리벌지(以理罰之) : (하늘의) 이치로써 그것을 벌함.
- 600) 득죄어인(得罪於人) : 사람에게 죄를 얻음.
- 601) 이형치지(以刑治之) : 형벌로써 그것을 다스림.
- 602) 수심수덕(修心修德) : 마음을 수양하고 덕을 닦음.
- 603) 극(極)히 : 극진히, 지극하게.
- 604)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 605) 시방시절(是方時節) : 지금 이 시기. 시방(是方)은 ‘시방(時方
- 606) 선천후천(先天後天) : 선천과 후천의 연원은 『주역』의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선천은 우주자연의 근원적 질서와 이치 자체를 의미한다면 후천은 그러한 이치를 받아들여 행하여 인문의 질서를 형성해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음.
- 607) 목덕이왕(木德以旺) : 목덕(木德)으로써 왕성해짐. 목덕(木德)은 어진 정치를 하는 것을 가리킴.
- 608) 수도(修道)하여 : 도를 닦아.
- 609) 계천립극(繼天立極) : 하늘의 뜻을 이어 법도를 세움.
- 610) 이내(台乃) : ‘나’ 혹은 ‘나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611) 비(比)해 보소 : 비교하거나 견주어 보소.
- 612) 삼황오제(三皇五帝) : <개명공산가>에서는 ‘복희·신농·헌원’을 삼황(三皇)으로, ‘소호(少昊)·전욱(顓頊)·고신(高辛)·당요(唐堯)·우순(虞舜)’을 오제(五帝)로 보고 있음.
- 613) 지성지효(至誠至孝) : 지극한 정성으로 효를 다함.
- 614) 극(極)히 : 극진히, 지극하게.
- 615) 경천순천(敬天順天) :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름.
- 616) 효칙(效則) : 본받아 법으로 삼음.
- 617) 지은지덕(至恩至德) : 지극한 은혜와 지극한 덕(德).
- 618) 성지우성(誠之又誠) :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 619) 대지달효(大知達孝) : 모든 사람이 알고 인정할 만큼 한결같이 지극한 효도.
- 620) 춘추지개락(春秋之開落) : 봄과 가을에 꽃이 피고 떨어짐.
- 621) 순수천리(順隨天理) :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따름.
- 622) 일거후(一去後)에 : 한 번 가고(죽고) 난 뒤에.
- 623)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 :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재물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

- 624) 존비귀천(尊卑貴賤) :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높음과 낮음, 또는 귀함과 천함.
- 625) 일생일사(一生一死) :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일.
- 626) 귀천지수(貴賤之殊) 정(定)했나니 : 귀함과 천함의 차이를 정했으니.
- 627) 삼대지덕(三代之德) : 중국 상고(上古) 시대에 있었던 하(夏) · 은(殷) · 주(周) 3대 왕조의 덕(德). 이 시기는 덕화(德化)에 의한 왕도(王道) 정치가 실시되었던 이상적인 태평성대임.
- 628) 후세막급(後世莫及) : 뒤 세대가 (도저히) 미칠 수 없음.
- 629) 경천지례(敬天之禮) : 하늘을 공경하는 도리.
- 630) 애달(愛怛)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림.
- 631) 쟁론(爭論) : 서로 다투어 토론함.
- 632) 도당씨(陶唐氏) : 오제(五帝) 중 한 명인 ‘요(堯)’를 가리킴. 요(堯)는 ‘제국 고신(帝嚳 高辛)’의 아들이며, 이름은 ‘방훈(放勳)’이고, ‘당요(唐堯)’ 또는 ‘제요 도당(帝堯 陶唐)’으로 불림. 중국 신화 속의 군주로 ‘순(舜)’과 함께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짐.
- 633) 소부허유(巢父許由) : 소부(巢父)와 허유(許由)는 요임금 때의 은자(隱者)로, 천하를 맡기고자 하여도 이를 거절하고 가난하게 산 청빈의 표본임.
- 634) 청절(淸絶) : 더할 수 없이 깨끗함.
- 635) 요순지세(堯舜之世) :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세상.
- 636) 고기직설(皐夔稷契) : 순임금의 신하로 법률을 만든 ‘고도(皐陶)’와 순임금의 신하인 ‘기(夔)’, 주나라 무왕의 조상인 ‘후직(后稷)’, 은나라 조상 ‘설(契)’을 함께 일컫는 말.
- 637) 하우상탕지세(夏禹商湯之世) : 하나라 우임금과 상나라 탕임금이 다스리던 세상. 상(商)는 은(殷)나라의 본디 명칭임.
- 638) 이윤전설(伊尹傳說) : 은(殷)나라의 현신(賢臣)이었던 이윤(伊尹)과 전설(傳說)을 함께 일컫는 말. 이윤은 탕왕을 도와 하(夏)나라의 걸왕을 멸망시켰고, 전설은 은나라를 증흥시켰음.
- 639) 문무지세(文武之世) : 문왕과 무왕이 다스리던 세상.
- 640) 주공소공(周公召公) : 주(周)나라의 건국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던 주공과 소공을 함께 일컫는 말.
- 641) 주쇠지세(周衰之世) : 주(周)나라가 약해져 가던 시대.
- 642) 공안증(孔顔曾) : 중국 춘추시대 유학자였던 공자(孔子)와 안연(顔淵)과 증자(曾子). 안연은 학덕이 높고 재질이 뛰어나 공자가 가장 신임하던 제자였음. 증자는 공자의 도(道)를 계승하였으며, 그의 가르침은 자사(子思)를 거쳐 맹자(孟子)에게 전해짐.
- 643) 자사맹자(子思孟子) : 유학 전승에 힘쓴 자사와 맹자를 가리킴. 자사는 노(魯)나라의 유학자로 공자의 손자이며, 『중용(中庸)』의 저자로 전함. 맹자는 공자의 유교사상을 자사에게서 배워 이를 더욱 발전시킨 전국시대 유학자임.
- 644) 열위성인(列位聖人) : (앞에서 나열한) 여러분 성인(聖人). 공자 · 안연 · 증자 · 자사 · 맹자는 유교의 다섯 성인(五聖)으로 꼽힘.
- 645) 역력(歷歷)히 : 뚜렷이, 생생히.
- 646) 제왕지위(帝王之位) 거(居)하시지 : 제왕의 지위에 있지.
- 647) 천성지품(天性之稟) : 하늘이 내려 저마다 타고난 기품(氣稟).
- 648) 수련(修煉) : 인격, 기술, 학문 따위를 닦아서 단련함. 수련(修鍊) 혹은 수련(修練)과 같음.

- 649) 계천립극(繼天立極) : 하늘의 뜻을 이어 법도를 세움.
- 650) 체천행도(體天行道) : 하늘의 도를 체득하여 행함.
- 651) 계왕성개래학(繼往聖開來學) : 성인(聖人)의 도를 계속 이어 가 후학들을 깨우침.
- 652) 은대덕중(恩大德重) : 은혜(恩惠)가 크고 은덕(恩德)이 무거움.
- 653) 각언각지(各言各知) : 모두 제 각각인 말과 지식.
- 654) 쟁론(爭論) : 서로 다투어 토론함.
- 655) 인간오욕(人間汚慾) : 사람의 더럽고 추잡한 욕심.
- 656) 침혹(沉惑) : 무엇을 몹시 좋아하여 정신을 잃고 거기에 빠짐.
- 657) 공로세월(空老歲月) : 아무 일도 해 놓은 것 없이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늙는 것.
- 658) 일편수심(一片修心) : 한 조각 마음 닦음.
- 659) 난법난도(亂法亂道) : 문란한 법과 도.
- 660) 가련(可憐) : 불쌍하고 가엾음.
- 661) 자고급금(自古及今) :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 662) 안심정기(安心正氣) :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함.
- 663) 수신(修身) : 악을 물리치고 선을 복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함.
- 664) 순수천리(順隨天理) :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따름.
- 665) 내성군자(乃成君子) : 이에 군자의 경지를 이룸.
- 666) 용담유사지제이십구(龍潭遺辭之第二十九) 개명공산사(開明共産歌)권일종(卷一終) : 『용담유사 제29 <개명공산가> 권일(卷一) 끝.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